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20호 【루계 제23437호】 주체100(2011)년 4월 30일(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로씨야 하바롭스까야 크라예바야 찌뽀그라피야출판사에서 14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를 네팔조선친선협회에서 최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618호 주체100(2011)년 4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내옴에 대하여

금강산은 조선의 명산, 세계의 명산이다.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천하절승 금강산은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세계적인 명승지로 훌륭하게 꾸려졌으며 금강산관광에 대한 우리 민족과 세계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체조선의 자랑으로, 세계의 명산으로 이름떨치고있는 금강산에 대한 관광을 국제적인 관광으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강원도 금강산지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내온다.
2.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3.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과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장려하며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5. 중앙관광지도기관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지들을 더 늘일수 있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것이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73호(주체91(2002)년 10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옴에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무적의 강군을 키우신 천하제일명장

남녘인민들의 경모의 정

탁월한 선군령도로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흠모의 정이 날로 뜨거워지고있다.

군사평론가 장명진은 어느 한 토론회장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이 왜 이북만은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북에 세계 어느 대적파도 맞서싸워 이길수 있는 무적필승의 인민군을 키우신 김정일령도자께서 계시기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세계건군사에 일찌기 볼수 없었던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탁월한 선군령도로 인민군을 무적의 대오로 키우시였다.

미래연구학회의 한 회원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볼수 없었던 선군혁명령도라는 독특한 정치로 이북군을 일당백의 무적강군으로 육성하고계신다, 그분의 독창적인 총대철학은 군중시, 선군혁명령도라는 선견지명의 정치를 낳았다고 격찬하였다.

한 지식인은 김정일장군님은 실로 력사상 처음으로 군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놓으시고 군으로 력사를 견인해나가시는 천재적령장이시며 탁월하고 세련된 정치가이시라고 흠모의 정을 터쳤다.

한 청년학생단체는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한 글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신것은 특기할 업적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이의 대범한 군사적지략과 배짱은 최근 더더욱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있다고 썼다.

남조선 각계층의 이러한 심정은 김정일장군님께서 현대전의 요구에 적응한 주체적인 군사리론과 전법으로 전군을 무장시키시여 일당백의 대오로 만드시였다고 토로한 인천에 사는 김유식,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언제나 군인들을 찾으시여 그들의 정신력을 키워주고계신다고 격찬한 퇴역장성 홍명기의 가슴속에도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전쟁사연구원 김명일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세계 최강의 군으로 평가되고있는 이북군의 위용을 분명히 느끼고있다.

이북군은 장비면에서도 손색이 없지만 특히는 정신적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 군도 감히 맞서지 못할 높이에 있다.

서울의 대학교수 정근석은 《이북군의 위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인민군이 강하고 이북이 강대하다고 주장하였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끊임없는 전선시찰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며 남조선 각지의 대학생들은 《강철의 담력과 의지, 령활한 령군술을 지니시여 무적필승의 령장으로 명성떨치시는 장군님》, 《조선인민군을 필승불패의 군대로 만드신 김정일장군님은 가장 출중한 군사의 대가이시다.》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한 대학교수는 학생들에게 농민들속에 들어가 《특출한 군사전략가로서의 김정일장군님에 대해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남녘겨레의 이 진정의 목소리들은 백두의 선군령장따라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싸워갈 신념의 메아리로 이어지고있다.

애국군인동지회 회원 최성모는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진정한 내 나라, 내 민족을 지키는 군인이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이 한몸 기꺼이 바칠 결심이라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어느 한 괴뢰군병영의 담벽에는 각계층의 심정을 반영한 다음과 같은 대자보가 나붙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은 천하제일명장!

장군님 계시여 민족의 존엄 빛나고 통일조국의 래일이 밝아온다.

따르자 받들자 김정일장군.

본사기자

김일성화, 김정일화에

2011서안세계원예박람회 최고상 수여

태양의 꽃 김일성화와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2011서안세계원예박람회 국제란꽃경쟁최고상인 금상과 전시금상이 수여되였다.

이번 경쟁에는 우리 나라와 타이, 일본, 스웨리예, 스위스 등 여러 나라와 지역 그리고 중국 각지의 수많은 단위가 참가하였다.

시상식이 27일 중국 서안에서 진행되였다.

시상식에서는 김일성화에 국제란꽃경쟁최고상인 금상을, 김정일화에 특별제정된 전시금상을 수여할데 대한 결정을 2011서안세계원예박람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하였다.

태양의 꽃 김일성화와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수여된 상장과 컵이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되였다.

【베이징발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휘황한 래일을 향하여 신심드높이 앞으로!

우리 당의 은정속에 넘쳐나는 인민의 기쁨

최근년간 수많은 문화정서생활기지들 새로 건설 및 개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여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깊이 마음쓰시며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최근년간 수많은 유원지와 공원, 극장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새로 건설되거나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였다.

많은 유원지들이 새로 건설되고 훌륭히 개건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나라의 곳곳에 있는 명산들과 명승지, 명소들에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유원지를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고 몸소 현지들을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칠보산유원지, 구월산유원지, 장수산유원지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의 유원지들이 건설되거나 개건되였으며 최근년간에는 묘향산유원지, 정방산유원지 등이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 동해기슭의 풍치수려한 곳에 자리잡고있는 마전유원지도 새롭게 변모되였다.

묘향산유원지에는 희한한 등산도로들과 정각 등이 새로 건설되고 향산호텔이 새 세기의 요구와 시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였으며 마전유원지에는 선군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인 마전호텔이 새로 건설되고 해수욕장 등이 더 잘 꾸려지였다.

예로부터 평양의 금강산으로 일러온 룡악산 역시 인민들이 즐겨찾는 유원지로, 문화휴식터로 희한하게 꾸려졌다.

대봉, 솔봉을 비롯한 20여개의 절묘한 봉우리들과 수십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지고 수백년 자란 느티나무, 참중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이 자라 봄에는 꽃향기 그윽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만산을 붉게 물들여 계절마다 절경인 룡악산에 수십km에 달하는 참관도로가 형성되고 여러개의 정각과 못, 놀이장과 야외식사터들이 훌륭하게 꾸려져 그 면모가 일신되였다.

황해금강으로 불리우는 장수산에도 수십km에 달하는 참관도로와 탐승길이 새로 닦아지고 다리 등이 건설되였다.

백운산유원지, 석암유원지, 송도원유원지, 와우도유원지도 더 잘 꾸려졌다.

당의 은정속에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새롭게 변모된 개선청년공원에서도 인민의 기쁨넘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리고있다.

3중회전반과 급강하탑, 관성비행단차와 전자오락실 등 최신식유희오락시설들과 지붕집, 빵집을 비롯한 봉사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지고 불장식 황홀한 개선청년공원에서 마음껏 즐기며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어머니 우리 당의 한없는 사랑과 은덕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고있다.

강계시에는 풍치수려한 장자강반에 강계청년공원유희장이 새로 일떠섰다.

안산공원, 선교공원을 비롯하여 수도의 곳곳에 훌륭히 꾸려진 공원들에서도 인민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있다. 동림군의 공원과 같은 문화휴식터들이 전국의 시, 군들에 꾸려졌다.

중앙동물원도 새 모습을 펼치였다. 중앙동물원이 세계 각지에서 서식하는 많은 희귀한 동물들을 자연적인 환경속에서 볼수 있도록 새롭게 훌륭히 꾸려졌으며 이곳에 현대적인 수의병원까지 일떠섬으로써 중앙동물원은 세계적인 동물원으로서의 체모를 더 잘 갖추게 되였다.

많은 극장, 영화관들이 훌륭히 건설되거나 개건되였다.

수도 평양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국립연극극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최신설비들과 훌륭한 비품들로 가득찬 무대와 관람석, 편의봉사 및 위생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극장에서 국립연극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며 예술창조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인민들은 아무런 불편없이 공연을 관람하며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사리원시를 비롯한 여러곳에 현대적인 극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수도의 모란봉극장, 동평양대극장, 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과 대동문영화관이 선군시대의 문화전당으로 훌륭히 개건되여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훌륭히 꾸려진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은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당의 은혜로운 사랑과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을 세상에 전하고있으며 당의 품에서 누리는 우리 인민의 행복을 소리높이 노래하고있다.

본사기자

물길굴공사 90%계선 돌파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희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물길굴공사를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인건설자들과 성, 중앙기관, 각 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 현재까지 물길굴공사량의 90%이상을 해제끼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이미 조선인민군 김웅철소속부대와 조선인민내무군 홍순철소속부대, 물길공사중앙지휘부아래 여러 려단들에서 맡은 대상공사를 전부 끝냈으며 조선인민내무군 한경국소속부대에서 물길굴피복공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공사과제를 마감단계에서 내밀고있다. 이들의 뒤를 이어 황해남도려단과 철도성려단, 평안북도려단의 건설자들이 맡은 구간에 대한 물길굴피복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물길굴공사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공사를 전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현장지휘부 일군들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우는 한편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조선인민내무군 한경국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높이 세운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같은 결의를 안고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나갔다. 부대지휘관들은 전투조직을 짜고들면서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밀고 군인건설자들을 집단적혁신에로 이끌어나갔다. 그리하여 부대가 맡은 물길굴피복공사과제를 빛나게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황해남도려단과 철도성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군인본때, 군인기질로 맡은 대상공사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매일 많은 량의 세멘트와 자갈, 모래 등 공사용자재들을 갱안으로 운반해놓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물길굴피복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내였다.

평안북도려단과 평안남도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물길굴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건설하기 위해 자신들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특히 평안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피복공사에서 발휘하였던 투쟁기풍으로 혼합물주입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남은 공사과제를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가고있다.

평안남도려단과 평양시려단, 함경남도려단, 룡산려단, 건설건재공업성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물길굴공사에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물길굴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앞당겨지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주체의 비날론섬유가 줄줄이 흘러나오고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전국청년동맹일군들의 화선식정치선전경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항일유격대식선전선동방법, 화선식정치사업방법을 구현할데 대하여 일관하게 강조하여왔으며 새 세기 혁명적진군이 벌어짐에 따라 그에 대한 요구를 더 높이고있습니다.》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고조진군에서 선군청년전위들의 전투적역할이 더욱 높아가고있는 속에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송림시에서 전국청년동맹일군들의 화선식정치선전경연이 진행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조직한 이번 경연에는 지난 3월초 도, 시, 군청년동맹조직들에서 진행한 화선식정치선전경연에서 선발된 우수한 청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연기간 이들은 해설담화제강, 선동문 등 자기 단위의 실정을 반영한 정치사업자료를 가지고 구두선동, 직관선동, 시와 노래를 통한 선동, 계기에 따르는 정황선동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선동으로 자신들의 높은 정치적자질과 실무적수준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온 나라에 천리마대진군때와 같은 혁명적열정과 기상이 꽉 차넘치게 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년초부터 모든 청년동맹일군들을 화선식정치사업의 능수로 키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이를 위해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모든 청년동맹일군들이 이번에 진행하는 화선식정치선전경연의 목적과 의의를 똑바로 알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다.

경연에 참가한 청년동맹일군들은 청년들속에서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할데 대한 주제,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일심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의 맨 앞장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갈데 대한 주제 등 현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일관되면서도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주제들로 화선식정치선전을 벌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 세대 청년일군들의 정치사상적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다.

함경남도청년동맹위원회 과장 리용일,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책임지도원 엄광철, 사리원시청년동맹위원회 비서 김옥이동무를 비롯한 경연에 참가한 많은 청년동맹일군들이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으면서도 선동성과 호소성이 높은 화선식정치선전을 진행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연기간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전투현장에서 기동적인 화선식정치선전도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 초급청년동맹위원회 비서 류철, 철도성병원 초급청년동맹위원회 비서 김향순, 보통강구역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김은별동무들이 강철직장의 초고전력전기로현장에서 혁명적인 시와 노래를 배합한 화선식정치선전을 전투적으로 벌리는 한편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준비해가지고온 지원물자를 넘겨주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황철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를 더한층 북돋아주었다.

온 나라 청년동맹원들의 관심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전국청년동맹일군들의 화선식정치선전경연은 우리 당의 웅대한 인민생활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군청년전위들의 슬기와 용맹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청년동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과 능력을 한계단 높이는것과 함께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황철웅

정 론

황남은 보란듯이 일어섰다

황해남도!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승리자들이 자기를 먹여준 어머니대지를 바라보며 뜨겁게 불러보는 이름이다.

경제강국의 높은 고지를 향하여 돌진하는 인민의 마음속에서는 조국의 아침을 남먼저 부르며 포전에 나가는 농업근로자들의 발구름소리가 들려온다.

조국과 인민은 잊지 못한다.

나라의 쌀독중에서도 제일 큰 쌀독을 책임졌기에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나라의 곡식을 꾸준히 가꾸어온 황해남도농업근로자들,

사회주의붕괴를 꿈꾸는 침략자들이 《기아설》을 내돌릴 때 메싹을 캐먹으면서도 인민에게 쌀을 보내준 황남의 농민들을 어찌 잊으랴.

찬바람 불어치는 얼음땅에서 한달이나 계절을 앞당겨 농사준비를 끝내고 이해의 씨를 묻은 황해남도농민들이여,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의 념원으로 가득찬 조국의 대지에, 우리 장군님의 강행군자욱으로 눈시울젖는 선군의 대지에 2011년 봄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1

공화국영웅메달이 불러온 봄이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세상을 떠난지 반세기가 넘는 김제원농민에게 안겨주신 공화국영웅메달로부터 농업전선의 새봄이 움텄다.

지난해 12월은 류달리도 추웠다.

례년에 없이 두텁게 얼어붙은 대지를 따라 공화국영웅메달을 실은 승용차가 질주하고있었다.

해방후 분여받은 땅에서 수확한 첫 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 계시는 평양으로 향하였던 김제원농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김제원농민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한다고 쓴 영웅증서와 메달이 황해남도인민들의 가슴을 그리도 미여지게 한것은 무엇때문이였던가.

《경애하는 장군님! 고맙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농민영웅이라고 불러주신 김제원동지에게 공화국영웅메달을 달아주신것은 이 나라 농민들에게 주신 최대의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걸어온 길에 고난이 크다고 농민구실을 잘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해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김제원농민이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이 땅에 뿌린 구슬땀과 붉은 피가 헛되지 않게 황해남도농민의 구실을 잘하겠습니다.》

김제원농민이 받아안은 공화국영웅메달을 쓸어보며 황해남도사람들이 눈물속에 다진 맹세의 목소리였다.

오직 김정일장군님만 믿고 따라온 황해남도농민들의 얼굴마다에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고귀한것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옛날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농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영웅의 땅이 이렇게 일어섰다.

영웅의 땅!

바로 이것이 우리 장군님께서 김제원영웅에게 안겨주신 공화국영웅메달을 받아안은 황남사람들이 새롭게 불러본 자기 도의 이름이다.

영웅의 땅이라는 이름그대로 영웅적기적이 여기 황남땅에서 일어나고있는것이다.

황남땅의 선구자들은 이해에 30일이나 앞당겨 농사준비를 끝냈다. 제철에 질적으로 씨를 뿌린 랭상모판에서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났다.

자기 절기를 놓치지 않고 해빛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곡식들의 생육기일을 원만히 보장하게 된것은 선군의 대지가 만세를 부르며 일어날 희한한 기적인것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벼의 생육기일이 길어야 밥에 풀기가 있다고 통속적으로 말씀하신것처럼 곡식들의 생육기일을 보장하는것은 한해농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우리 나라 농사면적의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황해남도에서 30일 앞당겨 농사준비를 끝내는 혁신이 일어난것은 농업전선의 희망찬 가을을 내다보게 한다.

아직까지 고난의 흔적을 안고있는 황남땅의 곳곳에서 하루, 이틀, 열흘도 아닌 30일이라는 시간을 단번에 얻어낸것은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지난 3월 안악군 오국리사람들이 씨뿌리기를 시작할무렵이였다.

찬바람을 그러안은 하늘도 황남의 얼음땅을 내려다보며 묻는것만 같았다.

땅이 녹지 않았는데 씨를 뿌릴수 있는가?

그러나 황남의 농민들은 대답하였다.

할수 있다!

이것은 황해남도농민들이 피눈물속에서 다지고 다져온 력사적사명감이였고 조국앞에서의 엄숙한 대답이였다.

우리는 누구나 허리띠를 조여매고 고난을 헤쳐왔다. 하지만 조국이 허리띠를 조여맨다는 말, 인민이 허리띠를 조여맨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농민들의 가슴속에 고이던 피눈물의 무게를 다 알수 없다. 령토의 80%이상을 산이 차지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사면적의 많은 자리를 차지한 황해남도, 그 이름은 곧 쌀이라는 말, 밥이라는 말이다.

하기에 황해남도가 일어서야 먹는 문제가 풀리고 황해남도에서 정보당 10t소리가 나와야 강성대국대문이 열린다는 인민의 목소리를 황해남도의 농민들은 피절게 새기고있다.

얼마나 준엄한 나날이 농민들의 집집마다에서 묵묵히 흘러갔던가.

침략자들이 조선에서 기아상태에 놓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패재를 부르고있을 때 황해남도농민들이 허리띠를 조여맨다는 말이 왜 그렇게도 인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가.

하지만 황남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주체농법으로 그어주신 영농계절이 하루하루 미루어지는 아픔이, 절기를 놓친 곡식들의 신음소리가 농민들의 가슴을 허비였다.

비료와 박막을 싣고 줄지어 달려오던 자동차행렬이 보이지 않고 영농물자를 싣고오던 렬차의 기적소리가 멎어섰을 때 나라의 큰 쌀독을 생각하면서 잠못들던 황해남도사람들,

허리띠를 조여맨 인민앞에 머리를 들수 없어 회의장에 가도 뒤자리를 찾고 로력영웅메달을 떳떳이 달고 나설수 없어 소리없이 눈물을 삼키던 관리위원장들,

쪽잠과 줴기밥으로 날과 달을 이으시며 전선길을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려보며 고난서린 땅에 씨를 묻고 그렇게 애써 지은 한줌한줌의 쌀을 모아 병사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준 참된 농민들이여,

하루 세끼 밥상앞에 앉으면서도, 자기 집 밥가마에 안칠 쌀걱정을 할 때에도 황해남도농민들의 그 아픔, 그 수고를 우리 다 알고있었던가.

주체농법을 지키자!

이렇게 웨치며 언땅우에 나섰던 황남사람들의 준절한 목소리가 귀전을 울려주는것만 같다.

황남사람들은 과학농사는 하늘을 이긴다는것을 굳게 믿고 결사의 각오로 언땅을 녹이였다. 그우에 랭기차단재를 깔았다. 그렇게 깐 랭기차단재우에 벼랭상모를 키울수 있는 보배흙을 덮고 씨앗을 뿌리였으며 그우에 다시 복토를 하고 박막을 덮었다. 무연한 벌판우에서 온실농사를 한것이였다.

황해남도에서 앞당긴 30일,

그것은 다른 도의 30일과 무게가 다르다.

한해농사의 첫 돌격전에서 황해남도가 얻어낸 30일은 농업전선의 가을을 내다보게 한다.

고난과 시련속에서 하루가 이틀로 멀어지고 열흘이 한달로 멀어졌던 30일, 그 30일을 앞당긴것은 전쟁승리의 국면을 열어놓은것과 같은 기적, 농업전선의 돌파구를 연 자랑스러운 위훈이다.

황해남도사람들은 공화국영웅메달을 받아안은 김제원농민의 후대들답게 일어섰다.

영농공정을 한달 앞당긴 승리의 시간을 따라 황남땅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것인가를 붉은 기발 높이 들고 벌에로 나가는 씩씩하고 름름한 저 모습들이 다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우리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산울림》주인공들이 대오의 앞장에 서고 나라에서 보내준 영농물자를 실은 자동차, 뜨락또르들이 신바람나게 따르고있는 저 장엄한 대오를 보라.

재령벌에서도 보이고 연백벌에서도 보인다. 안악의 어러리벌과 벽성의 취야벌에서도 들리고 청단의 어사벌, 배천의 거문재벌에서도 들린다.

아직은 동트기 전이건만 문화주택 여기저기에서 농민들이 신들메를 조이며 나오고 기계화작업반에서 뜨락또르들이 줄지어 벌로 나간다.

눈뿌리 아득히 뻗어간 포전들에서 논갈이, 밭갈이로 붐비는 협동벌의 새 기세가 공민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준다.

2

이 땅우에서는 곡식만 자라는것이 아니다.

비바람과 폭양속에서도 곡식을 가꾸며 살아가는 농민에게 있어서 땅은 애국과 량심을 키워주는 스승일뿐아니라 신념과 의지의 참뜻을 깨우쳐주는 터전이기도 하다.

황남땅의 무게는 더욱 그렇다.

그것은 정녕 땅이기 전에 영웅을 키우는 전선이며 그 땅을 다루는 사람들은 보통농민이 아니라 격전터에서 싸우는 전선농민이라고 불러야 할것이다.

혁신과 위훈의 바탕에는 그것을 키운 뿌리가 있듯이 황해남도농민들을 한결같이 일떠세운 힘의 바탕에는 영웅의 넋을 고이 안은 피어린 흙이 있다.

황남의 대지는 어제도 오늘도 붉은 흙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병사들이 황해남도의 한치한치의 땅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의 최후공격화살표를 그어주신 작전도의 중심에는 황해남도가 있었다. 침략자들과 마지막결사전을 벌린 전투의 중심에 바로 연백벌이 있었던것이다.

그 피어린 격전에서 수많은 인민군병사들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쳤다.

그렇다. 계급전은 땅을 놓고 벌어졌다.

나라의 쌀창고를 지켜 마지막끝까지 싸우고 낟알을 거두어내던 그 땅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였던 김제원농민의 영웅적최후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랑하는 촌토를 피로 물들이며 원쑤의 목을 틀어잡고 벼랑에서 떨어져 장렬하게 희생된 김제원농민의 딸의 최후도 이것을 보여주었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침략자들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람들가운데 황해남도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사실이 주는 교훈은 크다.

원쑤들은 땅을 다루는 농민들을 제일 많이 죽이였다. 왜? 제놈들이 빼앗긴 땅을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농민들이기때문이였다. 원쑤들에게는 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웠고 땅을 가꾸는 사람들이 제일 미웠다. 그래서 농민이라면 한사코 죽인것이였다.

해방후 분여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해주신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밤새워 가마니를 짜고 또 짜던 녀성농민을 무참히 살해한 원쑤들의 만행은 얼마나 야만적이였던가.

이년아, 가마니짜는것이 그렇게도 좋으면 가마니짜는 노래를 계속 불러보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녀맹위원장의 머리를 짜개고 두개골가운데 벼짚을 쓸어넣은 야만들,

네놈들이 나를 죽일수 있어도 이 심장속에 울리는 가마니짜는 노래를 막을수 없다고 웨치며 숨지는 순간까지 가마니짜는 노래를 부르던 황해남도녀성농민의 그 목소리가 오늘도 황남의 벌판에서 울리는것만 같다.

흙을 부여잡은 손을 가슴에 대고 네놈들이 이 흙을 踏기 전에는 나의 심장을 踏지 못한다고 웨칠 때 악을 쓰며 방아쇠를 당기던 원쑤들… 그렇게 붉은 피로 땅을 적시며 황남의 애국농민들이 쓰러졌다.

어찌 땅만이랴.

이 나라의 논과 밭에 흘러드는 물이 흔하다고 그것을 무심히 보지 말라.

물에 대한 소원을 풀어보자고 한푼두푼 모은 돈을 품고 길을 떠났던 재령벌농민이 반동의 칼에 찔려 갈뿌리를 피로 물들이며 쓰러진 땅,

한하늘아래에서 살고있지만 땅을 다루는것으로 하여 원쑤의 총부림, 칼부림을 많이도 받은 황해남도사람들,

하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농민들의 땅에 대한 세기적숙망, 물에 대한 세기적숙망, 기계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면서도 제일 마음아파하신것이 인간의 가슴속에 맺힌 숙망이 아니였던가.

적들의 모략선전으로 월남자가족이 된 설음속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우물집녀인도 품에 안아 나라의 대의원으로까지 내세워주신 수령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왜 그토록 눈물로 적셔주는것인가.

원쑤의 폭탄은 땅에만 떨어진것이 아니였다.

죄없는 인간의 마음에 떨군 폭탄때문에 대를 두고 가셔내기 힘들었던 마음속그늘들을 풀어주시려고 수령님 무겁게 걸으시였던 황남의 길들이여,

그래서 황남의 마을길들을 걸을 때면 어머니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이 나라 녀인들의 목소리가 그렇듯 가슴치게 귀전을 울려주는것이던가.

붉은 흙의 력사는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황해남도의 농사계절은 오늘도 포연속에서 흘러가고있다. 어제날의 은파산의 일가가 말해주는것처럼 황해남도사람들은 오늘도 역시 땅을 지켜선 농민, 계급진지를 지켜선 농민들이다.

여기는 분계선이 코앞에 보이는 곳, 적들의 삐라가 제일먼저 날아오는 땅, 원쑤들의 심리모략전의 음향이 가장 가까이 들리는 땅이다.

여기는 지금도 깊은 땅속에서 불발탄이 나오는 땅, 나팔탄쪼각이 나오는 땅이며 밤이면 남녘땅의 마을에서 개짖는 소리까지 들리는 곳이다.

전시도 아닌 평화의 시기 포연을 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세계를 뒤흔든 연평도사건이 보여준것처럼 모내기를 하다가도 김매기를 하다가도 포탄상자를 메고 달리는 사람들, 원쑤의 총탄에 피흘리며 쓰러진 병사를 안아일으켜 자기의 피를 수혈해주는 사람들이 오늘의 황해남도농민들이다.

《여러분, 원쑤의 포탄에 우리 병사들이 피를 흘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어야 합니까!》하는 방송차의 소리에 《아닙니다. —》하고 불토하듯 웨치며 병사들이 싸우는 전호에로 달려갔던 황해남도농민들이여,

연평도에서 날아온 원쑤의 포탄에 밭을 갈던 암소가 넘어졌을 때 증오의 불길마냥 원쑤를 절규하던 그대들의 목소리 가슴을 친다.

땅의 진가를 매일, 매 시각 피로써 체험하며 쌀을 만들어내는 그대들의 모습은 어찌하여 평시엔 그리도 소박한것이였던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틀림없이 북조선이 이길것이다. 왜 이기는가? 포탄이 떨어질 때 저만 살겠다고 달아나는 남한주민들과 포탄이 떨어질 때 전호로 달려가는 북한주민들, 바로 여기에 승패의 비결이 있다.》

연평도포격전에 대하여 쓴 남조선신문의 글,

적들까지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던 이 통쾌하고 가슴후련한 사실의 주인공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조국의 최전연에서 나라의 쌀독을 지켜선 황남의 농민들이다. 사회주의조선의 계급진지를 지켜선 황해남도의 농민들이다.

황해남도!

그래서 사회주의농촌을 생각할 때면 황해남도농민들의 구슬땀이 먼저 보인다. 그래서 농업전선을 생각할 때면 황해남도의 뜨락또르소리가, 황해남도의 씨뿌리는 소리가 그렇게도 세차게 우리의 심금을 두드리는것이다.

봄이면 논갈이한 땅에서 구수한 흙냄새가 풍겨오고 가을이면 벼이삭설레이는 소리가 가슴을 적시여주는 조국의 벌이여,

이 나라 그 어느 벌을 보아도 우리 수령님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곳이 없건만 연백벌 그 한복판에 서면 왜 그리도 수령님 생각에 눈굽 젖어드는가.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였던 1993년 8월의 그날, 한평생 포전길을 걸으시던 그 모습으로 환히 웃으시면서 연백벌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

농민들이 근심할가봐 지팽이를 승용차에 남겨두고 포전길에 나서시였던 우리 수령님,

그렇게 마지막끝까지 포전길을 걸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연백벌에서 그처럼 오래도록 조국의 벌들을 바라보셨는지 비내리는 7월의 그 포전길에서 더욱 똑똑히 깨닫지 않았던가.

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민 이 땅에서 인민의 행복이 세세년년 꽃피여나기를 간절히 념원하시며, 선렬들이 피로써 지키고 가꾸어온 조선의 대지를 오곡백과 차넘치게 자자손손 빛내여나가라고 불멸의 유훈을 새겨주시며 연백벌에 서계시는 우리의 어버이,

인민을 위한 고생을 락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걸으신 이 대지의 뿌리가 되여 서계시는 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 우러르면 연백벌에서 벼 정보당 10t을 하면 다시 오겠다고 하시던 그날의 음성이 우렁우렁하게 울려오는것만 같다.

그리고 들려온다.

나는 어떤 때에는 국가주석을 그만두고 황해남도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도하는 고문노릇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난다고 하시던 말씀,

나라의 쌀독을 위하여, 인민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신 그 마음, 그 희망, 한평생 겪으신 천만고생을 흙으로 편다면 이 땅을 다 덮고도 남으리라.

그것은 피보다 더 진한 애국의 넋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농민들은 자기가 가꾸는 땅을 붉은 흙이라고 말한다.

이 세상에서 포전길의 찬이슬을 제일 많이 맞으신분, 조국의 대지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신 어버이의 품속에서 땅의 참뜻을 익힌 황남의 농민들,

해별에 그을은 소박한 얼굴들, 한사람한사람의 가슴을 헤쳐보면 무엇이 있는지, 비내리는 포전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 땅에 첫 씨를 뿌릴 때 그들이 소원하는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오늘 다시 알았다.

흙은 피보다 진하다.

피어린 력사가 저 멀리 흘러가도 붉은 흙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 수령님 한평생 걸으신 발자취우에 아름다운 곡식을 자래워 세세년년 인민들을 먹여줄것이다.

바로 그 붉은 흙을 짚고 첫걸음마를 떼였고 그 붉은 흙을 가슴에 안고 자라났으며 그 붉은 흙우에 씨를 뿌리며 농사짓는 사람들이기에 황남사람들의 기질은 그렇듯 강하다.

하루나 열흘이 아니라 일년을 내다보며 이랑마다 구슬땀을 묻으며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것이 농민의 기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황남의 기질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황해남도농민의 기질은 우리 수령님 한평생 가꾸어주신 땅, 우리 장군님께서 강행군의 눈보라속에 지켜주신 이 땅을 순결한 량심으로 가꾸며 쓰러져도 조국의 붉은 흙으로 남는 강자의 기질인것이다.

3

준엄한 력사의 언덕을 넘어온 우리의 강행군은 농업전선의 승전고로 결정된다.

이 시각 조선혁명의 붉은 화살표는 식량문제해결에서 결정적돌파구를 열어야 할 농업전선의 최전선인 황해남도에로 힘있게 그어졌다.

황해남도에로!

이것은 쌀을 떠난 강성대국을 생각할수 없다는 철의 진리에 기초한 엄숙한 명령이다.

고난의 행군시기 토지정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주신 우리의 장군님께서 황해남도를 중심에 놓고 무르익혀오신 희망찬 설계도가 무엇인가를 농민들의 근엄하고도 자부에 넘친 눈빛들이 말해준다.

자급자족!

우리 수령님께서 조선이 살아갈 길을 놓고 일찌기 천명하시였던 자급자족이라는 이 대명제가 황해남도사람들의 심장속에서 기발처럼 나붓기고있다.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우에 주체철과 주체비날론, 주체비료, CNC기술을 떠올린 승리의 력사에 《자급자족》이라는 위대한 명제를 엄숙히 새기며 황남의 농업근로자들이 일어섰다.

자급자족!

참으로 이것은 인공지구위성이 날아오르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보며 긍지높이 웨쳤듯이 우리의 대지를 보며 자주라고 당당히 웨치게 될 조선의 존엄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립적민족경제가 생명이고 자위적국방공업이 명줄인것처럼 자급자족이 갈길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조선의 농업전선이 일어섰다.

온 세계가 식량문제를 놓고 아우성치고있는 오늘 자급자족이라는 말을 정말 할수 있는가?

황해남도농민들은 이 물음에 대하여 《할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결연히 대답하고있다.

주체농법은 이 나라에 만복을 주는 복씨이다.

이 위대한 농법대로 농사를 지으면 우리 나라는 반드시 자급자족할수 있다는것이 이 나라 농민들의 확고한 신조이다.

침략자들은 인류가 영원히 풀기 어려운것으로 되여있는 식량문제를 놓고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르면서 사회주의명줄을 흔들어보려 한다.

그렇다. 침략자들과의 가장 격렬한 싸움은 식량문제, 쌀문제를 놓고 벌어진다.

이 첨예한 결전에서 영웅의 땅 황남이 증오의 불길을 활활 터치며 일어선것이다.

붉은 흙을 가슴에 새긴 정신력에 자기 땅을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대지로, 오곡백과 설레이는 락원의 벌로 만들려는 성스러운 포부와 리상이 하나로 합쳐진 황남의 진짜기상이 용암처럼 폭발되였다.

온 나라 인민이, 온 나라 방선이 황해남도를 바라본다.

황남에서 봄을 앞당긴 30일의 투쟁정신이 모내기전투승리와 김매기전투의 승리로, 가을걷이전투의 승리로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가를 조국이 지켜본다.

농업전선의 앞장에서 달려온 농장들이 황해남도의 기적을 축하하며 경쟁을 호소한다.

황해남도농업근로자들이여,

크나큰 희열과 열정을 안겨주는 선군시대의 벅찬 숨결을 안고 신심드높이 나아가자.

온 나라가 쌀의 주인이다.

땅에는, 농사에는 손님이 있을수 없다.

지금은 《땅을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땅에 기여했다.》는 말이 더 필요한 때이다.

땅과 떨어져 살수 없는 자기 존재를 언제나 잊지 않을 때, 식량문제를 외면하고 살수 없는 자기 위치를 언제나 자각할 때 누구나 농업전선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수 있을것이다.

그대 어떤 직무에 있건 포전에서 사는 농민들의 요구를 귀담아듣고 농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군으로 될 때, 그대 어떤 초소에서 일하건 진실한 마음을 농업전선에 기울일 때 강성대국쌀독이 웃으며 일어설것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땅을 다루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우리 장군님께서 땅을 다루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계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누구나 농업전선을 돕자.

조선의 농업전선은 힘있게 나간다.

농악을 울리고 붉은 기폭을 휘날리면서 나간다.

참으로 용감하게 일떠선 황해남도에,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인민이여, 우리 다같이 열렬한 화답을 보내자.

우리 마음에 농립모를 같이 쓰고 같이 써레치기를 하고 같이 모내기를 하고 함께 김매기를 하며 농업전선의 사계절과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

행복과 번영의 낟가리가 하늘높이 솟아오를 강성대국의 풍년가을을 향하여 천만군민 힘차게 돌진하자!

송 미 란

올해에 기어이 연백벌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를 드높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는 농장원들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봄철영농사업을 실속있게 내밀자

알곡증수의 열쇠를 포기농사에서 찾고

황주군 철도협동농장 일군들

봄철영농전투로 들끓는 황주군 철도협동농장의 포전들에 가면 어디서나 포기농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일군들과 농장원들모두가 포전별, 벼모종류별포기수에 맞게 벼모판씨뿌리기를 성과적으로 끝낸 기세로 당면한 영농작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그렇다면 농장일군들이 포기농사에서 중시하고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어느날이였다. 제1작업반 2분조 모판에 나갔던 농장관리위원장은 농장원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였다. 내용인즉 씨뿌리기가 시작되였는데도 여전히 기온이 높아지지 않으니 걱정이 앞선다는것이였다. 그가 얼핏 보기에도 바람막이바자도 탐탁하게 치고 모판마다 차단재료를 깔아 온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놓고있었다. 하지만 모판의 온도를 재여보니 여전히 벼모의 생육에 필요한 온도가 보장되지 못하고있었다.

지금처럼 낮은 온도가 계속되면 싹트는률이 떨어지고 벼모가 아지를 적게 칠수 있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지금부터 예견성있게 포기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내밀어야 한다. 그는 이렇게 결심을 굳히였다.

농장관리위원장은 그날 저녁에 열린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자기의 생각을 터놓았다. 모두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는 좋은 방도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해나섰다. 협의회에서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 평당 포기수를 다시 정하였다. 이어 그에 따르는 씨뿌리기계획과 그 대책이 토론되였다. 여러가지 안들이 제기되였다.

그중에서 모판면적을 늘이자는 문제에 론의가 집중되였다. 포기수를 늘이자면 이미 계획한 모판면적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였던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창발적의견들을 종합하고 토의를 심화시켜나갔다. 그 과정에 모판면적을 계획보다 더 늘이는것과 함께 모판의 지력을 높이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것은 하나같이 실하게 키운 벼모들로 포기수를 보장해야 포기농사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기 때문이였다. 하지만 유기질비료생산량을 따져보니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씨뿌리기를 하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시간과 작업량을 타산해보며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때 농장관리위원장이 일어섰다.

《있을수 있는 모든 조건을 앞질러가며 타산해야 올해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습니다. 초급일군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떼는가 하는데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는것을 명심합시다.》

그의 말에서 포기농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깊이 새긴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모판면적을 늘이기 위한 대책안토의에 적극 나섰다. 그들은 씨뿌리기를 질적으로 하면서 모판만들기를 와닥닥 끝내기 위해 로력조직을 짜고들었다. 그리고 그 앞장에 서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농장원들은 모두가 떨쳐나 씨뿌리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면서도 모판마다 흙깔이를 하고 유기질비료와 흙보산비료, 미량원소비료를 충분히 냄으로써 다음단계 씨뿌리기에 들어설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농장의 일군들이 포기마다 옹근소출을 내기 위한 방법론을 찾아쥐고 실천하고있는것도 긍정할만 한것이다.

포기수를 타산하여 강냉이 밭머리마다에 유기질비료무지들을 만들어놓은 사실을 놓고보자.

일군들은 강냉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포전에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내는데서 찾고 그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그 과정에 찾은것이 바로 논벼그루터기를 진거름에 재웠다가 밑거름으로 리용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별로 포전에 심어야 할 강냉이포기수를 정해놓고 그만큼 논벼그루터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옮겨심으면서 포기마다 한개씩 같이 묻어주도록 하였다.

이런 빈틈없는 조직사업은 크게 은을 냈다. 질좋은 유기질비료가 많이 생산된것은 말할것도 없다. 이것을 계기로 포기농사에 대한 농장원들의 관심도 더 높아졌다. 빈땅을 많이 찾아 강냉이를 더 심기 위한 목표를 제기할 때에도 농장에서는 그에 필요한 영양단지모를 보장할것을 타산하였다. 그리고 그만한 포기수를 포함시켜 강냉이영양단지를 만들게 하였다.

단위면적당 수확고를 높일 목표를 세우고 봄철영농전투작전을 잘해나가고있는 농장일군들의 일본새는 긍정할만 한것이다.

본사기자 정영철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농사에서 물은 생명수이다. 농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더우기 5월에 가물현상이 나타날것이 예견되고 물을 많이 쓰게 될 모내기철이 다가오고있는 조건에서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머지않아 모내기가 시작되면 더 많은 물이 요구된다. 각지 관개관리소들과 농장들에서는 흐르는 물과 비물을 모조리 잡아 저수지와 저류지들에 채워넣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곳곳에 물주머니를 만들고 하천과 개울들에 보막이도 하여 더 많은 물을 잡아야 한다. 새로운 물원천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말고 진행하여야 한다.

잡아놓은 물을 허실없이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저수지제방과 물길에 대한 보수를 잘하여 한방울의 물도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물확보와 공급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급수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모든 농장들에서는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조건과 특성에 맞게 분수식관수, 짝지발식관수, 고랑관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관수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간석지논에 물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어야 한다. 관수설비들과 관수시설들의 상태에 빈틈이 없는가를 다시한번 따져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각지 관개관리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저수지물관리를 실정에 맞게 짜고들며 양수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

련관부문들에서는 관수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올해를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벼모판관리를 책임적으로 깐지게 하고있다.
—순안구역 대양농장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큰모재배의 우월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잘 짓자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키며 큰모와 두벌농사를 비롯한 현실적인 영농방법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큰모재배는 벼가 자라는 거의 절반기간을 모판에서 키워 해당 포전의 목표이삭수를 이삭당 알수가 많은 밑아지로 확보함으로써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다수확논벼재배기술이다. 모내기를 한 다음 김매기에 드는 로력이 절약되고 물관리만 하면 되므로 모판농사라고도 한다.

큰모재배는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논벼농사에서 집약화를 실현하여 알곡생산을 높일수 있게 하는 우월한 농사방법이다.

큰모를 재배하면 우선 논에서 두벌농사를 안전하게 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 지방에서는 두벌농사에 필요한 생육적산온도가 결정적으로 모자란다. 논두벌농사에서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도가 바로 큰모재배기술이다. 모판에서 모를 크게 키워 모내기를 하면 포전에서 자라는 기간이 짧으므로 수확고가 낮은 올종대신 중간종, 중간늦종 등 다수확품종을 뒤그루로 심어 논벼소출을 높일수 있다. 또한 앞그루 밀, 보리, 감자의 생육기일을 제대로 보장하여 앞뒤그루에서 다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다. 논두벌농사에서 큰모의 씨뿌리기는 5월 상순에, 모내기는 6월 하순에 하는것이 좋다.

간석지농사를 안전하게 짓는데서도 큰모재배가 우월하다. 5월에 간석지는 내륙지대보다 대기온도가 낮으므로 이때 모내기를 하면 저온피해와 소금기피해를 동시에 받아 모살이와 생육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나 모판에서 모를 크게 키워 6월중, 하순에 내면 뿌리썩음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병에 의한 피해를 막음으로써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다. 씨뿌리기는 경영조건들을 고려하여 4월말~5월초에 계단식으로 하는것이 좋다.

큰모재배는 논벼농사에 불리한 논과 지대들에서 논벼소출을 높일수 있게 한다. 랭습지, 지하수위가 높은 논, 생육후반기에 이러저러한 생리적요인으로 소출이 떨어지는 현상이 심한 논들에서 4월중, 하순에 큰모씨뿌리기를 하여 6월 중순경에 모내기하면 평당 이삭수가 확보되고 병충해를 막아 소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

지연성랭해가 심한 동해안지구에서 큰모재배기술을 받아들이면 랭해로 인한 수확고감소와 미숙현상을 막을수 있다. 큰모재배기술을 받아들이면 적산온도가 모자라는 중산간지대와 북부고산지대에서도 올종대신 중간종, 중간늦종을 심어 소출을 높일수 있다.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품질이 좋은 식량을 생산하는데서도 큰모재배가 효과적이다. 큰모재배에서는 논판에 김이 다 자란 다음 갈아엎거나 앞그루작물을 수확한 다음 갈아엎고 모내기를 하므로 포전에 살초제를 칠 필요가 없다. 또한 물코끼리벌레와 벼잎파리의 발생시기가 지난 다음 모내기를 하므로 살충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큰모재배기술은 논판과 강하천, 바다의 물고기자원을 보호하고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식량을 생산하는 유기농법의 한 형태로서 호평을 받고있다.

일명 모판농사라고도 하는 큰모재배에서는 씨뿌리는 시기와 씨뿌림량을 철저히 지키고 잎나이에 따르는 모판비료시비량을 정확히 보장함으로써 큰모의 징표에 도달한 모를 키워내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큰모재배의 우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적극 받아들이며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올해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성 국장 리재현

모판관리공들의 책임성을 높여

배천군 불길협동농장에서 모판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잘해나가고있다.

농장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에 나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벼모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제1작업반이 모판관리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작업반에서는 모판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모판의 온도와 습도를 정확히 보장하며 물주기와 덧거름주기, 농약치기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벼모들이 층하가 없이 잘 자라게 하고있다.

이 작업반의 모범을 따라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모판들의 씨뿌린 날자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실한 벼모들을 키워가고있다.

올해 논벼농사에서 장훈을 부를 마음안고 당면한 영농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모든 모판들에서는 벼모들이 실하게 자라고있다.

로농통신원 안두희

대용연료를 리용하여 덕을 본다

무산군 상창협동농장에서

무산군 상창협동농장은 대용연료리용에서 소문난 농장이다. 이 농장에서는 봄갈이는 물론 다른 영농공정작업도 대용연료를 리용한 뜨락또르로 하고있다. 농장에서는 대용연료를 리용하면서부터 많은 연유를 쓰지 않으면서도 뜨락또르의 리용률을 지난 시기보다 훨씬 높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대고조의 불길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지펴올리고 강성대국의 대문도 우리의 손으로 열어제껴야 합니다.》

올해에도 농장에서는 대용연료준비를 빈틈없이 해놓고 봄갈이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사실 이 농장에서 뜨락또르에 대용연료를 리용하자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사람들의 의견은 한결같지 않았다. 그것은 뜨락또르에 대용연료를 리용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농장일군들은 대용연료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뜨겁게 새겨안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리당일군은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뜨락또르에 대용연료를 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용연료를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는데서 우리 일군들이 앞장에 서야 합니다.》

그의 제기에 모든 일군들이 호응해나섰다. 더우기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것은 대용연료를 리용한 자동차처럼 하면 얼마든지 될수 있다는 기계화작업반 반장 허동현동무의 주장이였다. 여러가지로 타산해보니 뜨락또르에 대용연료를 받아들일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에 기초하여 일군들은 기계화작업반에 이 과업을 맡기고 대용연료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농장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갔다. 일군들이 기계화작업반에 내려가 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고심어린 노력끝에 기계화작업반원들은 가스발생로를 만들어 뜨락또르련결차우에 설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대용연료를 리용한 뜨락또르가 발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달리자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환성을 올렸다. 하지만 그 기쁨은 순간이였다. 련결차우에 발생로를 설치하다나니 밭갈이를 비롯한 영농작업을 기본으로 하는 뜨락또르가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여러가지 의견들이 오고갔지만 명백한것은 대용연료를 리용한 뜨락또르로 밭갈이는 물론 모든 영농작업을 할수 있게 발생로를 개조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하지만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자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리기마련이다. 새로운 신심을 가지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기계화작업반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외통식발생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외통식발생로는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용량이 작고 자재는 적게 들면서도 작업시간이 길어 뜨락또르운전수들이 마음먹은대로 영농작업을 할수 있었다.

농장에서는 대용연료를 리용하면서부터 한해에 수십t의 연유를 절약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최영림총리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비료생산실태 료해

【평양 4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최영림총리가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비료생산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총리는 기업소의 후민산직장, 성형직장을 비롯한 여러 비료생산공정들을 돌아보고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인 농업전선의 비약적발전에서 기업소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되였으며 가스화대상을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더욱 현대화하는 문제, 련관단위들에서 원료와 동력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들이 세워졌다.

총리는 이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범기대창조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50돐에 즈음하여 평양방직공장 설비점검열위원회의 역할과 설비점검열의 날, 26호모범기대정비주간, 26호모범기대정비월간운영을 통한 설비관리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누구나 운명을 맡기고 삽니다》

제 나이 이제는 일흔도 넘었습니다. 이러한 저를 혁명가유자녀라고 걸음걸음 보살펴주며 생의 활력을 부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철훈책임비서를 비롯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입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청진시 청암구역 인곡1동 36인민반에 살고있는 영예군인 전쟁로병 배병욱동무의 가정에도, 주체철생산체계완성에 크게 기여한 강철설계연구소의 로설계가들에게도 당조직의 손길이 뜨겁게 미치고있습니다. 그 하많은 이야기가운데서 저는 전쟁로병이며 공화국영웅인 배병욱동무를 위해 바친 당일군들의 가슴뜨거운 진정을 전하려고 합니다.

배병욱동무는 가렬처절하였던 전화의 나날 원쑤격멸의 길에서 당한 심한 부상의 후유증으로 지난 10여년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하며 병상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기적이 생겼습니다. 두눈을 찾게 되였던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다는 몰랐습니다. 한 전쟁로병을 위해 유능한 의료집단의 일군들과 만나 수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친혈육이 되여 수술립회까지 서준 고마운 당일군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대로 김철의 당조직은 그가 지금도 여생을 걱정없이 보내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있습니다.

진정 우리 당의 고마운 품을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인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목격하면서 저는 심장으로 다시한번 절감하였습니다.

혁명선배들을 귀중히 여기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우리 당의 품이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당의 품에 누구나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맡기고 사는것입니다.

청진시 포항구역 수북2동 30인민반 김춘강

자식들을 위하는 어머니심정으로

은파광산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당의 군중로선의 요구를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은파광산 초급당위원회는 최근에 좋은 경험을 창조해가고있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되는 장점으로 되고있는것은 자식들을 위하는 어머니의 심정그대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에 자그마한 흠이라도 생길세라 늘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그들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고 처방을 옳바로 내리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사업에서나 사람들을 대하는데서 겉만 보지 말고 안속을 볼줄 알아야 하며 매사를 심사숙고하고 로숙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치렬한 광물생산투쟁속에 보람찬 하루가 또 저물어가던 몇달전 어느날이였다.

광산지구의 밤하늘에 뭇별들이 총총히 빛나고있었지만 초급당비서 주남진동무는 사무실에서 자리를 뜰줄 몰랐다. 책상우에 놓여있는 하나의 자료를 보며 남산갱부문당비서에 대한 미더운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바로 그 얼마전의 일이였다. 남산갱 채준1소대 착암공 권영수동무의 작업실적이 이전보다 훨씬 처지고있었다.

이때 부문당비서는 권영수동무의 높지 못한 작업실적보다 그의 장점을 먼저 보면서 그와의 사업을 심화시키였다. 그리고 당세포비서와 함께 그의 가정도 방문하였다.

그 과정에 그의 안해가 앓는다는것과 권동무가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출근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부문당비서는 가정적고충을 숨겨온 그가 야속했다. 하지만 권동무의 생활을 미리 속속들이 헤아리지 못한 자신을 먼저 탓하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조직과 집단, 동지들의 뜨거운 지성속에 권동무의 안해는 빨리 완쾌되여갔으며 권동무의 작업실적도 뛰여올랐다. …

(광부들의 눈이 밝아야 수천길 지하막장에서 품위높은 광물을 쨍쨍 캐낼수 있듯이 사람과의 사업, 마음과의 사업을 하는 우리들의 눈이 밝아야 광부들의 정치적생명을 똑바로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줄수 있다.)

초급당비서는 리광수, 리봉만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과의 진지한 협의밑에 남산갱부문당위원회의 사업경험을 일반화하여 광산의 모든 당조직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보다 심도있게 진행해나가도록 하였다.

여기서 초급당위원회가 잘한것은 열길 물속은 몰라도 한치 사람의 속은 볼줄 알아야 하는것이 바로 당일군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의 참뜻을 모든 일군들이 항상 가슴깊이 새겨안고 자신들의 사람과의 사업정형을 매일 거기에 스스로 비추어보도록 한것이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또한 늘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매 사람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알맞는 사상교양사업들을 참신하게 들이댐으로써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 일군들의 긍정적인 소행을 찾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그렇게 되니 일군들은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성스러운 자각을 안고 보다 분발하여 일하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광부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어느것이나 원칙적이면서도 공명정대하게 처리되게 되였다.

언제인가 광산의 일부 행정경제일군들속에서 오랜 기술자인 배국태동무에 대한 그리 시원치 않은 말이 나돈적이 있었다.

평시에 배국태동무의 됨됨에 대하여 잘 알고있던 초급당비서는 해당 일군들에게 그의 문제를 옳바로 해명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일군들은 어느 한두사람이 아니라 배국태동무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배동무에 대한 료해를 심화시키였다.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배국태동무는 년로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광산의 광물생산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밑에 광산에서 그때까지 생산에 쓰고 버린 침전물을 다시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스스로 진행해오고있었다. 그는 공명심은 고사하고 여생마저 조국의 부강번영에 깡그리 바치려고 애쓰는 실로 보석같은 존재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일부 행정경제일군들의 그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아주는 한편 그의 정신세계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높이 내세워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로력도 붙여주면서 그의 연구사업이 하루빨리 좋은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었다.

당조직의 사랑과 믿음에서 커다란 힘을 얻은 배국태동무는 연구사업을 보다 정열적으로 다그쳐 마침내 광산의 광물생산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실리적인 전망을 열어놓게 되였다.

철든 자식일수록 어머니의 원칙적인 사랑을 더 잊지 못해하는 법이다.

광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고조격전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뒤떨어질세라 마음을 쓰며 온갖 뼈심을 기울여가는 당일군들의 모습에서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손길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갱들에 차있던 물들을 결사적으로 퍼내였으며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할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정확한 진단, 옳은 처방에 참된 사랑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그 마음, 그 모습 아름다와라

내각사무국 로동자 김영일동무와 그의 안해 리성옥동무

지난 3월 수도의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는 쌀로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청춘의 리상을 꽃피울 의지를 안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깃든 영광의 땅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으로 자원진출하는 평양장원중학교 졸업생들인 김총순을 비롯한 10여명의 청년들에 대한 환송모임이 진행되였다.

그때 꽃다발, 꽃보라속에 묻힌 청년들을 누구보다 대견한 눈길로 바라보며 행복에 눈물짓는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김총순을 비롯한 12명 청년들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내각사무국 로동자 김영일동무와 그의 안해인 리성옥동무였다. 그들에게는 농장으로 진출하는 청년들만이 아닌 많은 자식들이 있다.

하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되여 그들은 그처럼 많은 자식들을 둔 자랑스러운 부부가 되였고 자식들모두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장한 길에 떳떳이 내세울수 있게 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의 삶이 보람있는것으로 되자면 영생하는 집단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는바가 있고 남기는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전 2월 어느날 저녁이였다. 김영일동무는 낯모를 한 애기를 안고 집으로 퇴근해왔다. 남편을 맞이하던 리성옥동무는 뜻밖의 일에 놀라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였다.

《웬 애기예요?》

조심스럽게 묻는 안해에게 김영일동무는 말없이 포단에 싼 애기를 내밀었다. 그러나 리성옥동무는 여전히 그린듯 서있었다.

맵짠 겨울바람이 채 닫기지 않은 출입문짬으로 쓸어들었다. 잠시후 그들부부는 쌔근쌔근 잠자고있는 애기를 따뜻한 아래목에 눕히고 마주앉았다.

《당신과 의논도 없이 정말 미안하오.》

《…》

《그러지 않아도 난 늘 장거리 운행길을 다니고 당신 혼자서 효성이와 효명이를 키우느라 수고하는데…

하지만 어찌겠소. 나라가 시련을 겪고있는 때가 아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소.》

《당신 심정은 알만 해요. 그러나 남의 애기를 맡아가지고 제대로 키우지 못하기라도 하면… 난 그게 걱정이예요.》

《그럼 당분간이라도 애를 좀 맡아주오. 나도 좀 생각해보겠소.》

갑자기 부닥친 일을 두고 그날 밤 리성옥동무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에야 솔곳이 잠에 들었던 그는 자지러진 애기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이거 야단났군. 열이 세게 나누만.》

그때까지도 애기옆에 앉아있던 김영일동무가 다급히 애기이마를 짚어보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리성옥동무는 무작정 애기를 들춰업고 동진료소로 달리였다.

얼마후 주사를 맞고 열이 내려 편안히 잠든 애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눈앞에는 이른새벽에 낯선 애기를 안고 진료소에 달려온 사연을 알고 자기를 기대에 찬 눈길로 바라보던 의사의 얼굴과 온밤을 애기곁에서 새우던 남편의 모습이 자꾸만 얼른거리였다.

한달후 어느날 아침이였다. 리성옥동무는 이전보다 훨씬 튼튼해진 애기를 품에 꼭 안은채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이제 애기를 애육원에 보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하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머루알같은 눈으로 자기를 말똥말똥 올려다보며 옴지락거리는 애기를 달래면서 그는 미리 장만해두었던 암가루며 옷가지들을 보자기에 쌌다 풀었다 하였다. 그러다가 남편이 곁에 다가온것을 본 순간 저도모르게 애기를 안고 돌아앉으며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우리가 키우자요. 내가, 내가 이 애 엄마가 되겠어요.》

그러고는 애기의 이마에 볼을 비비며 어깨를 떨었다.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했던 날 용서하세요.》

김영일동무는 안해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지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러는 그의 눈에도 뜨거운것이 반짝이였다.

부부는 서로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한생이 애의 부모로 살자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있었다.

아버지, 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효성이가 아장아장 다가와 애기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였다.

《이 애기도 내 동생이나?》

《그래 효성아,네 동생이란다.》

김영일, 리성옥동무들은 손을 맞잡고 처녀애와 두 아들을 품에 그러안으며 밝게 웃었다. 그들은 이제부터 세 자식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것이다.

자기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할줄 알고 미래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의 품은 뜨겁고 넓다.

부모잃은 애들을 향해 한껏 펼친 김영일, 리성옥동무의 품에는 10여명의 어린이들이 또 안기였다. 모두 피눈물의 그해에 태여난 아이들이였다.

김영일동무의 집 부뚜막에서는 늘 암죽이 끓었고 마당의 빨래줄에는 아침, 저녁으로 애기들의 기저귀가 가득 걸리였다. 밤이면 부부가 교대로 울보채는 아이들을 돌보았다.

힘들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은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내였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당에서는 부모잃은 15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워가는 리성옥동무를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장으로 불렀다.

감격과 흥분속에 대회의 나날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날 리성옥동무는 얼굴을 붉히며 남편에게 말했다.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한 훌륭한 녀성들과 나란히 대회장에 앉아있자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것은 그의 진심이였다.

며칠후 그의 집아래목에 자그마한 베개가 다섯개 더 놓이였다. 그는 이젠 22명 어린이의 어머니가 되였다.

종일 애들시중에 무릎이 쏘도록 오가다가도, 매일 100자루나마 되는 연필을 깎아주느라 손가락들이 저리여 어떤 때는 밥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해도 밤에 자기들곁에 주런이 누워서 꿈속에서조차 웃음짓는 22명 아들딸들의 귀여운 얼굴을 들여다보느라면 김영일동무와 리성옥동무는 기쁨에 가슴이 설레이였고 새 힘이 솟구치군 하였다. 자기네 부부를 위해주고 도와주는 고마운 동지들과 이웃들의 정을 생각하며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리라 마음다지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한해가 다르게 커가던 어느날 김영일동무의 직장에서는 일군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이 소식도 없이 갑자기 자동차를 타고와 가장집물을 모두 적재함에 실었다. 애들은 저저마다 한명씩 품에 안았다.

얼마후 등메1동의 새 집에 도착한 김영일동무는 동지들의 손길에 떠밀려 방안에 들어서다가 그만 눈물을 쏟았다. 부엌에서는 그의 안해가 흐느끼였다.

새 이불장이며 옷장들, 텔레비죤수상기며 록음기, 재봉기, 새 담요들과 이불들…

정녕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어머니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따뜻한 조국의 품이 있고 고마운 당의 손길이 있었다.

아이들을 키우는 나날에 김영일동무는 다른 일터로 자리를 옮기게 되였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전 직장에서처럼 그의 가정을 성심성의로 도와주었다.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라고 많은 남새며 땔감을 실어오고 별식도 안고오는 박병준, 박리경동무를 비롯한 직장일군들과 종업원들로 하여 김영일동무의 집문은 닫길새가 없었다.

(얼마나 좋은 동지들인가. 얼마나 훌륭한 우리 사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김영일동무와 리성옥동무는 자식들을 잘 키워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내세우리라 더 굳게 결심하군 하였다.

김영일동무와 리성옥동무는 일요일이면 아이들을 만경대유희장이며 대성산유희장에 데리고가 휴식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도 하고 이 시각도 아버지장군님께서는 너희들의 행복을 지켜 전선길에 계신다고 말하면서 애들이 령도자를 알고 조국을 아는 참된 인간으로 자라도록 교양하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리성옥동무는 몸이 몹시 불편하여 아이들을 학교로 떠나보낸 후 쓰러지다싶이 자리에 누웠다.

몇시간이나 흘렀는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뜬 그는 저으기 놀랐다. 총순이와 옹위가 잉어 두마리를 들고 서있는것이였다.

《공부는 어찌고 대체 무슨 일이냐?》

《잉어를 구하러 양어장엘…》

《뭐? 양어장에…》

리성옥동무는 불쑥 목이 메여올랐지만 얼굴을 돌리면서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당장 학교에 가거라. 어머니가 못난 너희들때문에 앓는것을 바라지 않거든.》

리성옥동무는 그날 저녁 가족모임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도 방금 텔레비죤화면에서 전선시찰의 길에 계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영상을 뵈았지.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고 미래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나라고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전선길을 걸으시며 우리의 요람을 지켜주고계신단다. 나는 너희들이 장군님의 그 은덕을 잊지 말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억세게 자라나 귀중한 우리 제도를 지키고 아버지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성새, 방패가 되고 총폭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너희들의 이름도 그렇게 지은것이 아니냐.》

이런 진정과 원칙적인 교양, 뜨거운 정성속에서 끌끌하게 성장한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둘 조국보위초소로 떠나갈 때마다 그리고 초소에서 군사복무를 잘하고있는 자식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올 때마다 김영일, 리성옥동무는 기쁨과 보람을 금치 못하군 하였다.

그런 날이면 이제 얼마 안있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될 다른 18명 자식들의 모습을 한명한명 여겨보군 하였다.

어느날 김영일동무와 리성옥동무는 자식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였다. 총순이에게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하겠는가고 물었더니 그도, 다른 애들도 그건 아직 비밀이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와하실 그런 곳에 가겠다고 대답하는것이였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흘러 마침내 애들이 학교를 졸업할 날을 하루 앞둔 날 저녁이였다.

애들에게 줄 졸업기념품을 마련하려고 상점에 갔다가 방안에 들어서던 김영일동무와 리성옥동무는 그만 우뚝 서고말았다. 방한가운데 놓인 밥상에 정성껏 지은 음식이 차려져있고 그곁에 빙 둘러서서 자기들을 바라보는 여러 아이들의 손에는 하나와 같이 무엇인가 들려있었던것이다.

《우리를 키우시느라 이날이 때껏 남모르게 많은 수고를 하신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며 아버지, 어머니가 애오라지 바라고 또 바라신 그 소원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러며 손에 쥐고 있던것을 내보였다. 그것은 쌀로써 당을 받들 결심을 안고 사회주의농촌에 진출할것을 탄원한 증서였다. 김영일, 리성옥동무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와락 그러안았다.

《용쿠나. 너희들이 헛자라지 않았구나.》

그들을 에워싸며 이번에는 효명이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조국보위초소에 나가 꼭 영웅이 되여 돌아오겠습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청춘을 빛내일 장한 결심을 한 그들모두를 김영일동무가 일하는 내각사무국의 일군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은 열렬히 축하해주었고 기념품들과 지원물자들을 안겨주며 적극 고무해주었다.

하지만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크나큰 사랑의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을줄 누가 알았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에 영원히 뿌리내리고 알곡증산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 결심을 한 김영일동무가정의 12명의 자식들을 선군청년총동원대회장에 불러주시고 그들모두에게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또한 영광의 땅 청산벌로 달려가는 그들에 대한 환송모임과 환영모임도 잘 조직하도록 해주시고 청산협동농장에서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수십명의 부모잃은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키운 김영일, 리성옥동무들의 훌륭한 소행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해주시였다.

⁘ ⁘

애써 키운 자식들을 모두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농촌으로 떠나보낸 김영일동무와 리성옥동무는 22명의 영웅이 집대문에 들어설 날을 기다리고있다.

그리고 이따금 자식들이 떠나간 길을 밟으면서 지나간 나날들을 추억하군 한다.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으며 기쁨과 행복, 보람도 컸던 길을!

그들은 앞으로도 그런 생활의 길을 걸을것이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면서, 나라와 인민,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면서, 조국의 미래를 꽃피우면서.

본사기자 장은영

선군시대의 황석철이 되여

사회주의협동벌로 달려나간 제대군인청년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각지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간 수많은 제대군인들이 경희극 《산울림》의 주인공처럼 사회주의농촌의 참된 주인이 될 결심과 포부를 안고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중화군 명월협동농장에 달려나간 제대군인 김천식동무는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매일 많은 거름을 생산하였으며 하루일을 마친 다음에는 스스로 뜨락또르교대운전수가 되여 거름실어내기를 하면서 영농작업에서 이신작칙하고있다.

함경북도농촌경리위원회 아래단위의 한 농장에 달려나간 제대군인 최경익동무 역시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일하고 생활하면서 농사일에 앞장서고있다.

회양군 룡포협동농장에 달려나간 제대군인 고성철동무는 지력이 제일 낮은 포전을 자진하여 맡아 관리하면서 한줌의 거름이라도 더 내여 땅을 기름지게 하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룡강군 후산협동농장에 달려나간 제대군인 김영학동무는 많은 알곡을 생산하자면 땅을 잘 걸구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루일을 끝낸 다음에도 쉬지 않고 매일 스스로 2시간씩 감탕을 파내여 논에 실어냄으로써 농장원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각지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간 제대군인들이 농장원들을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켜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금야군 중동협동농장에서 일하고있는 제대군인 김명국동무는 지난해 알곡생산실적이 뒤떨어진 한 작업반에 자진하여 배치받은 다음 영농기전으로 지력이 낮은 20정보의 논에 흙깔이를 할 목표를 세우고 분조원들과 청년들을 불러일으켜 40여일동안에 끝내는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어랑군 어대진협동농장에서 일하고있는 제대군인 한혁철동무는 지난 1월 3일 농장원모임에서 분조별, 작업반별거름실어내기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호소한 다음 이신작칙으로 분조원들을 불러일으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7일이나 앞당겨 거름실어내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신계군 가무협동농장에서 일하고있는 제대군인 홍명길동무 역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서 분조원들을 이끌어나감으로써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하였다.

라선시농촌경리위원회 아래단위의 한 농장에서 일하고있는 제대군인 유광석동무는 붉은기들을 만들어 작업현장에 나붓기게 하고 분조안의 청년들을 니탄캐기작업에 힘있게 불러일으켜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는데 적극 기여하였으며 세포군 후평협동농장에서 일하고있는 제대군인 전광석동무는 7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니탄캐기전투장에 나가 일하면서 포전방송기재로 선동사업을 벌려 집단적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협동벌들에 달려나간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자강도당위원회, 강원도당위원회, 황해북도당위원회, 함경남도당위원회, 성천군당위원회, 평원군당위원회에서는 농촌에 달려나간 제대군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항상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각지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간 제대군인들은 자기들에게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않고 선군시대의 황석철이가 되여 당의 농업정책 관철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드는데 적극 기여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영웅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김주혁중학교에서— 김철우 찍음

향토애가 꽃피운 선경마을

평천구역 봉남동에서

봄철위생월간에 거리와 마을, 가정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꾸려가는 평천구역 봉남동의 일군들과 주민들, 행복의 보금자리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자는 동일군들의 적극적인 정치사업에 호응하여 동주민들이 모두 떨쳐나섰다.

동에서는 대담하게 봄철위생월간 단계별목표들을 높이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갔다.

마을주변을 공원처럼 꾸리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건늠길과 구획들의 정리작업, 양묘장, 꽃밭만들기 등 동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가기 위한 사업이 활기있게 벌어졌다.

또한 유희장과 놀이장의 시설물들에 대한 도색을 훌륭히 끝낸데 이어 거리와 마을주변에 꽃밭과 잔디밭을 새로 조성하고 아빠트들의 구획마다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1만여그루나 심고 가꾸고있다.

동사무소의 일군들은 지구별로 책임지고 현지에 나가 인민반장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동에서는 특히 주민들속에서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된 충성의 7월11일붉은기동, 인민반쟁취운동과 선군생활문화모범가정창조운동 등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이 열렬한 향토애, 조국애를 더욱 깊이 간직하고 자기가 사는 거리와 마을, 가정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였다.

지구별, 인민반별로 위생문화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위생문화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는데 맞게 총화사업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하여 동의 면모는 나날이 달라져가고있다.

진철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진행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가 3월 10일부터 평양과 남포, 원산, 청진 등지에서 진행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온 나라 인민들과 체육애호가들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된 경기대회에서 선수들은 당의 체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련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경기대회에서는 사격, 력기, 륙상경기의 여러 세부종목에서 공화국 새 기록이 세워졌다.

롱구경기에서는 4.25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배구경기에서는 4.25체육단 남자선수들과 평양체육단 녀자선수들이, 야구경기에서는 기관차체육단 남자선수들이, 쏘프트볼경기에서는 평양시 모란봉체육단 녀자선수들이, 짧은주로속도빙상경기에서는 대성산체육단 남자선수들과 장산체육단 녀자선수들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경기대회페막식이 29일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강능수내각부총리,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이 페막식에 참가하였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등이 수여되였다.

박명철체육상이 페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올해 공동사설을 받들고 모든 체육인들이 훈련에 계속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군으로 존엄높은 내 나라, 내 조국을 금메달로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충정의 마음을 안고

북창군 송남로동자구에 사는 김형일로인은 20여년세월 수천그루의 향나무를 심고 가꾸고있다. 그는 불타는 충정의 마음안고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정성껏 자래운 400여그루의 향나무를 혁명의 성지 만경대와 유서깊은 룡남산에 보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인의 애국적소행을 헤아려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분에 넘치는 그 은정에 보답할 마음안고 그는 지난 기간 계속 수많은 향나무를 심고 가꾸어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들과 도안의 공장, 기업소, 농촌들에 보내주었다.

그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2000여그루의 향나무를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 보낼 목표를 세우고 오늘도 향나무가꾸기에 진정을 기울이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영수

훌륭한 정신세계의 발현

각지 중학교, 소학교교원들

수많은 중학교, 소학교교원들속에서 선군시대 교육자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훌륭한 소행들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교원들을 믿고 조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맡겼습니다. 교원들은 당과 혁명앞에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인재로 키워야 할 중대한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염주군 동발중학교 소학반 교원 강옥희동무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참된 교육자이다. 그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교양자료집 《은정의 나날》,《우리 장군님 제일》,《선군혁명령도의 나날》,《충성의 나날》과 《교수를 통한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구현자료집》등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적극 진행하고있다. 한편 자녀교양에서 학부형들의 관심을 높이는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또한 학급학생들과 함께 수십리 도로구간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심고 가꾸는 사업도 진행하고있다. 그 나날 11개 학급을 영예의 붉은기학급, 2중영예의 붉은기학급, 최우등학급으로 만들었다.

연산군 생금중학교 분교 교원 리순실동무는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한 학생을 업고다니면서 공부시키고 다리치료도 적극 도와주어 회복단계에 들어서게 하였을뿐아니라 학생의 옷과 신발을 비롯한 생활필수품과 학용품들을 성의껏 마련해주었다. 지난해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학생이 소년단에 입단하게 되였을 때 리순실동무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기가 학생을 업고 조선소년단입단식에 참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화대군 남산중학교 교원 김어금동무는 자기가 맡은 학급의 한 학생이 부모를 잃게 되자 그를 집에 데려다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보살펴주고 끌끌히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웠을뿐아니라 제자가 군사복무를 잘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그가 제대된 후에는 대학에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쳐갈수 있도록 떠밀어주었다. 김어금동무는 학과실력이 낮은 한 학생에 대한 개별학습지도를 꾸준히 하여 그를 학교콤퓨터소조원으로 키워낸것을 비롯하여 지난 기간 담임한 학급학생들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보살펴주고 교육교양하였으며 그들의 전도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쓰며 학생들을 조국의 래일의 기둥감으로 자라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었다. 또한 그는 자기가 담임한 학급학생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글작품집 《꽃피는 우리 교실》과 결의편지를 삼가 올려 기쁨을 드릴수 있게 하였으며 학급이 3중영예의 붉은기학급칭호를 쟁취할수 있게 하였다.

함주군 로동중학교 교원 김춘애동무는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앞날의 주인공들로 키우기 위해 과외시간과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학생들에게 손풍금, 기타, 북, 피리 등 여러가지 악기연주기법을 배워주었으며 일기와 수필 등 글쓰기를 정상화하도록 지도하여 그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누구나 《충성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글작품도 남기게 하였다.

그 과정에 인민군대에 입대한 한 졸업생이 몇해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한 공연에서 북을 잘 친다는 치하의 말씀을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가 지금까지 졸업시킨 160여명의 제자들이 학교기간 2~3가지이상의 악기를 배워가지고 인민군대와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부문에 진출하여 선군시대 군중문화예술을 활짝 꽃피우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는 앓고있는 한 학생을 여러해동안 친자식처럼 극진히 돌봐주면서 치료를 도와주어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워주었다.

영웅강계장자산제1중학교 교원 백영미동무는 자기가 맡은 학급의 한 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었으며 몸이 불편하여 수업에 제대로 참가하지 못하는 한 학생을 위해 귀한 약재까지 구해다주면서 그의 병치료를 극진히 도와주었다.

백영미동무는 또한 학생들의 가슴속에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흠모심을 더욱 깊이 새겨주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학생들의 자그마한 긍정의 싹도 제때에 찾아내고 내세워주면서 그들의 부모들과의 련계밑에 학생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청년동맹초급열성자로, 최우등생으로 자라날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평양제1중학교 교원 심월섭, 김주혁중학교 교원 조광일, 청남구 새거리중학교 교원 리춘옥, 벽성군 영웅벽성중학교 교원 안련희동무를 비롯한 많은 교원들이 선군시대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깊이 새겨안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으며 교단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각지의 중학교, 소학교교원들속에서 발휘되는 훌륭한 소행들은 새 세대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훌륭히 키워가는 우리 시대 교육자들의 높은 정신세계의 발현으로 된다.

본사기자 김승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중국 국가부주석을 의례방문

지재룡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을 의례방문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습근평 부주석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부주석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 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두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시여 호금도주석과 상봉하시고 쌍무관계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요문제들에서 견해일치를 이룩하시였으며 올해에는 조선을 방문한 맹건주국무위원을 접견해주시고 정월대보름에 즈음하여 주조중국대사관 성원들과 함께 은하수관현악단의 음악회를 관람하신데 대해 언급하였다.

중조선린우호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방침이라고 하면서 그는 호상 고위급래왕을 유지하고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하며 경제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두 나라관계가 더욱 발전되리라는 희망을 표시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였다.

룩셈부르그그리스도교사회인민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 도착

프랑크 엥겔 룩셈부르그그리스도교사회인민당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29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이 맞이하였다.

중국에 갔던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 귀국

중국에서 진행된 국제로조연단에 참가하였던 최한춘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이 29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직총중앙위원회 일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공화국은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

인간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활짝 꽃피워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인 우리 공화국을 우러러 남조선인민들은 《진정한 민중중심의 사회, 민중의 나라》라고 부러움과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부산의 한 대학교수는 만난을 이겨내고 승리에로 돌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에 찬탄을 금치 못하면서 제자들앞에서 자기의 격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서방세계의 끈질긴 경제봉쇄나 가혹한 자연재난속에서 더욱 생명력을 과시하고있는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는 공화국을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부상시켰고 전체 민중을 경제강국건설에 궐기시키고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는 이북을 세상에 소리치며 강성대국에로 도약시키는 기치라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다른 나라들같았으면 벌써 주저앉았을 엄혹한 난국에서도 용기백배 강성대국건설에로 돌진하는 이북민중의 모습은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의 위대한 생명력을 더욱 절감하게 한다. 민중중심의 사회, 이북사회는 불패의 생명력을 지니고 영원히 승리할것이다.》

남조선의 한 재야인사도 자기의 글에서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이북의 사회주의는 계속 승승장구하고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뜻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북에 모아지는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나는 그 비결이 이북이 이전 쏘련이나 동유럽사회주의와는 근본이 다른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북은 민중을 찾아가는것이 제도화된 세상이다. 이북에서는 말그대로 모든것이 민중을 위해 복무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는 이북사회전반에 관통되여있다. 정치와 경제도 민중우선이고 시책과 혜택도 민중위주이다. 이북은 우리 이남민중의 리상향이다. 통일조국은 이북과 같은 세상으로 되여야 한다. 김정일장군님을 따르면 우리에게도 밝은 세상이 오리라.》

인민대중의 참다운 삶이 꽃펴나고 인간의 자주적권리가 참답게 보장되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 이것은 인류가 세기를 두고 너무도 간절히 바라온 꿈이다. 하기에 그 꿈이 현실로 꽃핀 우리 공화국의 사회제도를 찬양하는 남녘인민들의 마음도 이처럼 열렬한것이다. 독재통치하에 신음하는 남녘겨레에게 있어서 인민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생활을 꽃피워주는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삶의 등대이고 리상의 세계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어느 한 출판물에 실렸던 글을 통해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동경심을 잘 알수 있다.

《민중속으로! 이것은 이북의 가장 보편화되고 생활화된 모습이며 이북식민중사회가 낳은 특유한 풍경이다. 민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민중만세, 민중제일을 선언한 위대한 철학이다. 이북은 이 독특한 민중중시사상을 초석으로, 기둥으로 하고있다. 그에 바탕하여 당과 정권, 제도가 서있다. 그래서 로동당은 향도자이면서도 민중을 자식처럼 돌보는 어머니가 된다. 정권도 국가권력기구이기에 앞서 민중생활을 책임진 호주가 된다. 이북은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에 억년 쇠퇴를 모르며 영원히 개화만발한다. 이북민중은 력사의 체험을 통해 사회주의를 생활로, 생명으로 새겨안았다. 민중이 나라와 정치의 주인, 경제의 주역으로 되고 문학과 예술의 창조자인 동시에 향유자로 되고있는 그 좋은 세상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여기는 이북민중이다. 한 신문이 북에서는 〈인민대중속으로 파고드는 정치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고 한것은 조금도 과장된 평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자기들이 안겨살 삶의 요람으로 바라보는 남녘겨레의 절절한 심정의 토로는 가는 곳마다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이북은 우리들의 희망이고 미래이다.》

《이북사회는 민중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민중을 위한 명실공히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이다.》

《이 땅에서는 민중이 천시되고 있지만 이북에서는 사회의 주인으로 우대받고있다. 우리 이남민중이 민중중시의 천국에서 참된 삶을 누리자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나는 가까운 앞날에 그런 희한한 날이 우리 이남에도 오리라고 확신한다.》

부산의 한 무역회사원은 동료들앞에서 《외국사람들은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의례히 〈김일성!〉, 〈김정일!〉하고 엄지손가락을 펴보인다. 그것은 그분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이북이 민중에게 끝없는 행복과 참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사회, 민중중심의 사회, 주체사상이 활짝 꽃펴난 사회주의사회로 빛을 뿌리고있기때문이다.》라고 격정에 넘쳐 웨쳤다. 광주에서도 《북에서는 가는 곳마다에, 지어 사람들이 타고다니는 뻐스에까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나붙어있고 사람들은 국가의 혜택속에 모두가 활기에 넘쳐 생활하고있다고 한다. 공화국의 품만이 온 겨레가 함께 안겨살 은혜로운 품이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여 북으로 가고싶다.》는 격조높은 웨침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럴수록 남조선인민들은 인간사랑의 화원을 마련하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경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민중행길은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주석님그대로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장정에 의해 곧게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장군께서는 정치의 중심에 민중을 놓으시고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으신다.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세워도 민중의 념원에 기초하시고 민중의 리익과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마음쓰신다. 평범한 민중들을 만나 국사를 의논하시고 그들의 소박한 생각도 국정에 담으시는 장군, 장군께서 민중을 찾아 나누시는 대화는 곧 이북의 정책과 로선이 되여 발표되고 나라의 혜택과 시책이 되여 민중에게 베풀어진다.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쪽잠과 줴기밥으로 날과 달을 보내시면서도 그 고행을 달게 여기신다는 장군, 렬차에서의 생활을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신다니 그분께서 민중을 위해 얼마나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이것은 비단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 아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인간사랑의 정치가 있음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워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굳건하며 자기들도 진정한 인민의 사회의 한 성원으로 참된 삶을 누리게 될것이라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확고한 신념이다.

본사기자 장 윤 남

반역정책에 대한 민심의 응당한 심판

지난 27일 남조선에서 보충《선거》가 있었다. 경기도와 남조선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38곳에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야당세력들에게 여지없이 패하였다. 《한나라당》은 《전통터밭》이라고 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남조선강원도에서도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지금 《한나라당》은 대표를 비롯한 상부성원모두가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수라장이 되고있다.

《선거》는 반역정책을 추구하는자들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는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현 남조선《정권》의 정책과 정치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것이였다. 특히 래년에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주목을 끌었다. 이번 《선거》에서 시대의 요구와 민심을 거역해나선 집권세력에게 인민들은 엄정하고도 단호한 판결을 내렸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반역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었다.

《한나라당》패들은 지난 3년간 《잃어버린 10년》을 떠벌이며 반인민적이고 반민족적인 정책을 강행하였다.

그들의 외세의존정책과 파쑈독재통치는 인민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여지없이 말살하고 사회를 민주와 인권의 처참한 페허로 만들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경제살리기》를 비롯한 수많은 공약을 내들었지만 그것은 기만이고 우롱이였다. 지난 3년간 경제는 파국에로 치닫고 인민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여 온갖 사회악이 범람하고있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6.15통일시대의 창조물들을 모조리 짓밟으면서 대결전쟁책동에 피눈이 되여 돌아친 반역통치배들의 죄악도 남조선인민들은 계산해두고있었다.

민심을 거역하면 대가를 치르기마련이다.

인민은 대중을 우롱기만하는 반역통치배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비와 용서를 모른다.

《한나라당》집권세력이 그것을 망각했기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그렇듯 분주랑을 피웠지만 종당에는 비극적결과를 초래한것이다.

지금 《한나라당》패들은 《선거》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느니, 《지도부의 총사퇴》니 하며 사태를 수습해보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민심을 돌려세울수는 없다.

인민을 등진 반역통치배들에게는 앞날이 없다.

《한나라당》집권세력은 이번 《선거》결과를 민심의 응당한 판결로 받아들이고 반인민적이고 반민족적인 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최 철 순

무릎을 꿇은 《한나라당》

남조선신문들 보도

남조선신문들이 이번 보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것과 관련하여 28일 사설들을 실었다.

《한겨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래도 민심을 외면하겠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 《정부》 집권 3년간에 대한 총체적평가의 성격을 지닌 4.27보충선거가 《한나라당》의 패배로 결속되였다고 전하였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의 최대격전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에서의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도지사선거에서도 야당세력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기초단체장선거에서 여당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역의 민심마저 등을 돌린 사실은 현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의 패배는 이미 예고된것이라고 하면서 여당이 지금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독선과 오만, 무능으로 일관해왔다고 사설은 비난하였다.

《세계일보》는 이번 보충선거기간 《한나라당》후보들이 전통적인 우세지역에서 락엽처럼 나떨어진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한나라당》후보가 여당의 아성으로 간주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에서 민주당후보에게 무릎꿇은것은 현《정권》에 대한 민중의 심판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일보》는 《4.27민심은 또다시 국정쇄신을 요구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보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지난해 지방자치제선거에 이어 또다시 참패하였다고 까밝혔다.

래년 총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패한것은 그릇된 국정운영을 반대하는 민심의 반영이라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동포신문 특집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21일 우즈베끼스딴에서 발행되는 동포신문 《통일》이 특집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사진을 실었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9돐을 뜻깊게 기념한데 대해 소개하였다.

해마다 4월 15일이 오면 위대한 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찾아간다고 하면서 신문은 방문자들의 사진을 글과 함께 편집하였다.

신문은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발명성과들》, 《우리식의 프로그람발전면모를 과시》라는 제목아래 우리 공화국에서 최첨단돌파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데 대해 게재하였다.

북남실무접촉을 가로막는 당국에 항의

남조선의 민주로총 통일위원회가 25일부터 서울의 《정부》종합청사주변에서 북남로동자들의 교류를 가로막는 피뢰당국을 규탄하는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첫날시위에 나선 단체 통일위원장은 통일부가 28일로 예정된 5.1절행사 공동개최를 위한 개성에서의 남북실무접촉을 방해해나선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통일부가 접촉신청을 받기 전부터 불허립장을 밝히고 신청을 접수한 후에도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통일부가 최근 북과 확스련계를 가지는데 대해서까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단죄하였다. 그는 당국이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는것과 함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전환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침략적인 남조선미국동맹 페기를 주장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5일 미국과의 침략적인 군사동맹강화에 매달리는 피뢰패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26일 미국 워싱톤에서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외교국방차관보회의가 진행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난해 7월의 외교국방장관회담과 지난 4월 16일의 외교장관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를 론의하기 위한 이번 회의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실현, 미국과의 협력 및 동맹강화 그리고 남조선,미국,일본의 군사적협력 등의 문제들이 토의되게 된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 예속시키려 하고있으며 당국이 미국의 강도적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의 자주,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침략적이고 굴욕적인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즉시 페기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것을 호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4.19인민봉기 51돐에 즈음하여 19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이 떨쳐일어나 리승만독재세력의 부정선거를 반대하여 봉기를 일으킨 때로부터 51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지적하였다.

4.19봉기를 통해 남녘민중은 독재자를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고 민주화의 새 력사를 새겼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 땅에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계속되고있으며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미국이 리승만《정권》이 무너진 이후 새로운 독재자들을 내세워 민중을 학살하고 우리 민족의 영구분렬을 획책하면서 이 땅에 핵전쟁위기를 몰아오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전체 민중이 4.19봉기자들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민주의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단결하여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민주로총이 5월투쟁계획 확정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21일 단체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가지고 5월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

단체는 5.1절을 맞으며 임금인상, 《로조관계법》전면재개정 그리고 물가폭등과 민생파탄을 몰아온 현《정권》심판을 위한 집회를 서울을 비롯한 15개 지역에서 일제히 가질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5.18광주민중봉기기념일을 계기로 로동자들의 요구조건실현을 위한 집회, 선전전과 여러가지 투쟁을 강도높게 전개할것이라고 단체는 언명하였다. 단체는 산하 로조들에 소속된 비정규직로동자들의 조직화사업추진 등의 문제들도 토의결정하였다.

로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보장을 요구

남조선의 민주로총, 참여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이 21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로동자들에 대한 정치적권리보장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을 비롯한 로동자들이 정치적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선거때마다 《정부》와 업주들이 로동자들의 투표참가를 비렬하게 막아나서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나마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당국의 악정을 반대하였다 하여 《선거법》위반으로 몰려 박해를 받았다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그들은 로동자들의 정치적권리를 위해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거되여야 할 대결광신자

오늘 우리 겨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여 평화와 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리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그러나 북남대결을 추구하는 남조선집권세력은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원인이 마치도 우리에게 있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면서 그 누구의 《변화》와 《진정성》에 대하여 집요하게 떠들고있다. 그런 불순한 망발을 제일 악질적으로 내뱉는자가 바로 통일부 장관 현인택이다.

현인택으로 말하면 그는 현《정권》이 정식 출현하기 전부터 통일부의 폐지를 떠든것으로 하여 지독한 동족대결광신자로 락인찍힌자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현인택이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되였을 때부터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통일부에 현인택과 같은 반통일대결광신자를 들여앉히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강한 반감을 표시하였다.

당시 통일부관계자들을 비롯한 《정부》급인물들속에서는 통일부폐지를 주장했던 현인택이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것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하면서 현인택의 《통일부폐지》론으로 저조해진 통일부가 《더 위축되지 않을가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었다.

그 우려는 그대로 현실로 되였다. 역도는 겨레의 지향에는 아랑곳없이 《비핵, 개방, 3000》과 같은 반통일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고갔다. 통일부의 기구와 권능을 대폭 축소하고 북남 각계층사이의 래왕과 접촉은 물론 금강산관광문제까지도 부당한 조건과 구실을 붙여가며 사사건건 가로막아나선것이 바로 현인택역도이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제도를 감히 넘보는 불순하기 그지없는 《통일세》제안 실현을 위해 맨 앞장에서 분주랑을 피운자가 다름아닌 현인택이다. 이자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다느니, 저들이 《원하는 남북관계를 이끌어낼것》이라느니 하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상태에로 끊임없이 몰아갈 흉심을 드러냈는가 하면 《1보 전진, 2보 후퇴》와 같은 얼빠진 소리들을 입에 올리며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모면해보려고 획책하였다.

최근에도 역도는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북남관계개선에 마치도 관심이 있는듯이 역설하다가 북남대화가 마련되지 못하고있는 책임이 우리의 그 무슨 《비협조적인 태도》에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망발을 줴쳐댔다.

오늘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한 력사적과제는 단순히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씌우고 그것을 외면한다고 하여 풀릴 문제가 아니며 북남사이의 실무자들은 물론 각계층이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아 토의할 때에만 해결될수 있는 문제이다.

하기에 우리는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에 조국통일을 위한 조건부없는 협상을 진행할데 대하여 제의하였으며 지금도 그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택이 아직까지도 책임전가놀음에 매달리면서 말장난을 부리고있는 현실은 그가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해 리성마저 잃고 헤덤비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인택의 이러한 망동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반민족적인 행위인것으로 하여 지금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발표한 성명에서 보수단체의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관련하여 그 배후에 현인택이 있다고 단죄한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단체는 성명에서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현인택이 누구보다 더 대결광기를 부리고 대결환경을 조장하고있다는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이라고 까밝히면서 당국이 현인택을 당장 통일부 장관자리에서 떼버리고 하루빨리 북과의 대화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그 길을 가로막는 현인택이 지체없이 제거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록음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한 거리로

대성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금성거리입구로부터 강동으로 향하는 도로입구까지 대성구역의 모든 거리와 공원, 유원지들에 화려한 꽃바다가 펼쳐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계절을 앞당겨 피여난 만수국, 효성화를 비롯하여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풍기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양의 기본명산들인 만경봉과 모란봉, 대성산과 그것을 감돌며 흐르는 대동강과 보통강의 아름다운 풍치에 어울리게 시안의 여러곳에 공원과 유원지들을 잘 건설하고 여러가지 꽃나무, 과일나무, 가로수들을 많이 심어 도시전체가 하나의 큰 공원을 이루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말이였다. 대성구역당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구역안의 기관, 기업소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리였다. 평양시를 록음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한 도시로 꾸리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을 토의하는 협의회는 좀처럼 끝이 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짧은 기간에 구역안의 거리와 공원, 유원지, 살림집구획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나무들을 심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모두가 생각을 깊이하였다. 아름찬 과제여서 협의회참가자들은 누구도 선뜻 대책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때 협의회장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낮으나 힘있는 구역당책임일군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물론 우리가 내세운 목표가 어렵고 힘든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야 주체의 최고성지 가까이에서 사는 대성구역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모두 한사람같이 떨쳐나 구역의 모든 거리를 록음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한 거리로 꾸려갑시다.》

구역당책임일군의 이야기는 비록 길지 않았지만 협의회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회의실에서는 저마다 어려운 과제를 맡겨달라는 일군들의 열띤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협의회에서는 구역이 수행해야 할 전망목표와 단계별목표가 정해지고 분공들이 조직되였다.

협의회가 끝난 후 온 구역이 들끓었다.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새로운 온실을 건설하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졌다. 온실건설에 떨쳐나선 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나운 추위속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수백㎡에 달하는 번듯한 온실을 일떠세웠다.

구역당위원회로부터 구역안의 기관, 기업소는 물론 모든 가정들에서 꽃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구역의 모든 단위들에 꽃재배에 필요한 도서들을 보장해주는 사업과 함께 단위별로 중앙식물원과 평양화초연구소, 구역의 온실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하는 한편 꽃씨들을 보내주기 위한 사업도 일관성있게 내밀었다.

꽃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 구역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지던 지난 2월초 어느날 온실들을 돌아보던 구역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온실과 기관, 기업소, 가정들에서 피운 꽃만으로 구역의 모든 거리들에 향기그윽한 꽃바다를 펼칠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때문이였다. 사색을 거듭하던 그들은 전문가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은 랭상방법을 도입하여 온실을 더 짓지 않고도 많은 꽃들을 키울수 있는 방도를 찾고 이 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일군들이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를 거듭하며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니 협의회에서 토의된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여나갔다. 강동으로 향하는 도로입구의 여러곳에 대형화단을 조성하는 사업도 계획했던 날자보다 보름이나 앞당겨 끝나게 되였고 봄철을 맞으며 문덕거리에만도 1만여그루의 측백나무가 심어졌으며 15만그루의 고양나무와 1만 5천그루의 진달래나무가 구역의 거리들과 공원, 유원지들에 뿌리를 내리였다.

우리는 여기에 공원관리소와 원림사업소, 룡북식료공장과 중앙은행 평양시 대성지점, 구역종합식당과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송이한송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온 사연많은 이야기는 더 적지 않는다. 구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모든 거리마다 향기그윽한 꽃바다가 펼쳐졌다.

자연의 계절을 앞당겨 활짝 피여나 구역의 모든 거리마다에 펼쳐진 희한한 꽃바다, 이는 진정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록음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한 도시로 꾸려가려는 대성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정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특파기자 최 수 복

원산농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며 혁명적인 연구기풍을 세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야 합니다.》

원산농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이곳 교원, 연구사들은 농산과 축산, 잠업을 비롯하여 농업발전을 추동하는 수십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음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대학당조직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이 과학연구사업을 잘하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그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에서는 교육사업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는것과 함께 교원, 연구사들이 나라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특히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정확히 장악하고 연구과제를 빠른 기간에 완성하도록 교원, 연구사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그 과정에 농업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연구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농업생물학부 육종학강좌의 교원들은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새로운 콩종자를 육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농업과학연구소 연구사들은 농산과 축산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강원도안의 여러 농장들에나가 알곡먹이를 절약하면서도 고기생산을 늘일수 있는 새로운 복합미생물을 생산에 받아들일수 있게 하는 연구성과를 이룩하였다.

농기계학부 농업설비조종학강좌의 교원들도 알깨우기장치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나라의 가금업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강좌의 교원들은 누에알과 고치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설비를 새롭게 연구완성하였다.

이밖에도 대학에서는 새로운 남새품종을 육종한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연구과제를 완성하고 그 성과들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 천 일

세 자식을 조국보위초소에

단천시 장내협동농장 농산제2작업반 김성희동무는 세 자식을 모두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웠다.

김성희동무는 자식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정의 행복도, 조국의 미래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데 있다고 늘 이야기하군 하였다.

조국보위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라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한 자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차제로 혁명의 군복을 입었다.

초소에서 보내온 자식들의 기쁜 소식이 담긴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김성희동무는 선군시대 후방가족된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고있다. 그는 선동원으로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로 불러일으키고 인민군대원호사업에서도 앞장서고있다.

로농통신원 원 기 연

강철의 령장,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태양절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 꼴롬비아, 탄자니아, 민주꽁고, 우간다와 범아프리카운동 서기국에서 토론회와 독보회가 9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도이췰란드공산당 니데르작센주위원회, 하노버주체사상연구소조, 로테 파네신문사, 꼴롬비아강계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 모로고로 음쥼베종합대학 김일성주의연구소조와 김일성도서관, 민주꽁고로동계시민협회 주체사상연구소조, 우간다 캄팔라시 키탄테소학교 그리고 범아프리카운동 서기국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꼴롬비아강계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하이로 곤쌀레스 뜨루힐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영예의 상징으로, 필승불패의 보검으로 되고있는 선군정치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신분은 김일성주석이시다.

주석께서는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무장한 적은 무장으로 타승해야 한다는 총대중시사상, 선군사상과 그에 기초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주석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은 그후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정에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무력을 불패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자립적인 강력한 국방공업을 건설하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선군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탄자니아 모로고로 음쥼베종합대학 김일성주의연구소조 책임자 싸라 므왐발라스와는 김일성주석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만민의 어버이이시다, 그이를 높이 모시고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해왔기에 조선은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솟아 빛을 뿌릴수 있었으며 강성대국건설의 거창한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다고 격찬하였다.

범아프리카운동 총서기집행보좌관 오씨에노 스테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온갖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와 그이의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이 있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가장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김정일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가까운 앞날에 조국땅우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다.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 ⁂

태양절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가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영국에 있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조선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세계의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그이는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다.

그이께서는 나라를 해방하고 주체의 새 조선을 건설하시였으며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원칙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일관하게 관철하심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제도를 성과적으로 일떠세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미투쟁과 세계자주화로선을 비롯하여 세계혁명에 관한 옳바른 로선들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의 지침으로 되고있으며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 ⁂

태양절에 즈음하여 수리아, 브라질인사가 담화를 발표하였다.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싸베르 발룰은 14일 담화에서 해마다 태양절을 맞이할 때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경건한 마음으로 김일성주석을 회고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원대한 뜻을 안으시고 성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26년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1932년에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1945년 8월 15일에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조선을 해방하시였다.

그이께서는 1930년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김일성주석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을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 령도자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조선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승리만을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있어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류의 태양으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위원장보좌관 뻬드로 데 올리베이라는 11일 담화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하시였으며 반제자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 ⁂

태양절에 즈음하여 핀란드, 스위스단체가 인터네트홈페지에 특집하고 기념글을 올렸다.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는 5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에서는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날을 태양절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조국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나라와 인민들의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시고 그를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신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주체사상의 정당성은 날이 감에 따라 더욱 뚜렷이 실증되고있으며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옹호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3월 28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과 강령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신데 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통일3대헌장을 정립하시였으며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을 마련해주시고 북남공동선언들이 채택발표되도록 하신데 대하여 전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만민이 흠모하는 위대한 수령

탁월한 사상리론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우리 시대의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였다. 김일성주석은 인민대중을 자주위업실현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이시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거대한 업적은 인류에게 사상의 고귀한 유산을 남기신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력사발전을 추동한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일성주석의 고귀한 업적은 영원할것이다.》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 쑬리아문화협회 위원장)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주석각하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세계정치의 원로이시다.》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

세계의 정치원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정치원로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여 세계사회주의운동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을 때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사회주의원칙,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확고히 고수하도록 하시였다. 진정 그이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실뿐아니라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향도자이시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선군사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아버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조선에서는 주석의 군사중시사상, 선군사상에 의하여 당과 국가가 창건되기에 앞서 군대가 창건되였다.

김일성주석은 선군사상의 창시자이실뿐아니라 혁명활동전기간 선군혁명령도로 백승을 떨쳐오신 걸출한 령도자이시였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

《미제의 전쟁도발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생사를 판가리하는 실로 준엄한 시련이 아닐수 없었다. 포악무도한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지 5년, 공화국이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작은 나라인 조선의 상대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 국제반동세력들이였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용약 떨쳐나 침략자 미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믿음직하게 지켜냈다. 하기에 오늘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세계평화를 수호하시고 인류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승리의 상징으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며 칭송하고있는것이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인터네트홈페지)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그렇고 오늘의 조선을 건설하는 전기간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조선을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나라로 건설하시였다. 오늘 조선의 그 어디를 찾아가봐도 그이의 발자취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인민들은 그이를 어버이수령으로 열렬히 흠모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수령도 많지만 김일성주석만이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오신 전설적위인이시다.》 (훌륭한 록색가이아나당 총비서)

인덕의 최고화신

《김일성주석은 인류가 우러르는 향도의 태양이시다. 김일성주석께서 그처럼 인민을 귀중히 여기시고 인류가 오래동안 념원해온 인간사랑의 화원을 열어주신것은 10대의 어리신 소년기로부터 마련되여온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 준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게 된것도 억압받고 천대받는 인민들에 대한 그이의 남다른 사랑과 인민들의 운명을 구원하시려는 비상한 각오와 관련되여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신 그이의 한평생은 숭고한 인덕정치의 전설같은 이야기로 수놓아져있다.》 (수리아신문 《알 우쑤부우 알 리야디》)

본사기자 라명성

호금도주석 청년학생들의 과업에 대해 언급

중국의 호금도주석이 24일 청화대학창립 100돐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청년학생들의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은 청년들에게 빛나는 삶의 활무대를 마련해주었다고 하면서 청화대학 학생들과 전국의 청년학생들이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실지행동으로 인민과 시대앞에 떳떳한 업적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사회의 훌륭하고도 빠른 발전을 추동하는데서 과학기술은 기본이고 인재는 핵심이며 교육은 기초이라고 밝히고 그는 당의 교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자, 계승자들을 적극 키워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전체 인민이 단결할것을 호소

꼴롬비아대통령 후안 마누엘 싼또스가 25일 자연재해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이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올해에 들어와 나라에서 무더기비에 의한 혹심한 큰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데 대해 언급하고 정부는 재해지역주민들에 대한 원조사업을 선차적으로 밀고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주민들이 힘을 합쳐 재난을 가시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에서 강한 회오리바람으로 많은 피해

미국의 동남부지역에서 최근 강한 회오리바람이 휩쓸어 많은 인적, 물적피해가 났다.

28일현재 알라바마와 미씨시피를 비롯한 여러 주들에서 회오리바람발생건수는 137건에 달하였다.

그로 인해 200여명이 목숨을 잃고 막대한 물질적손실이 초래되였다.

알라바마주 지사는 주에서 1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사망자수가 더 늘어날것으로 예견되고있다고 밝혔다. 피해가 심한 알라바마주와 미씨시피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군의 이라크주둔 비난

이란국회 의장 알리 라리자니가 25일 미군의 이라크주둔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주민들을 대결과 분쟁에로 부추기고있는데 대해 까밝히고 그는 미군의 이라크주둔은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원인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는 민족적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이라크인민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이란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위성운반로케트 발사

인디아에서 20일 3개의 위성을 탑재한 운반로케트를 발사하였다.

이 나라 우주연구기관은 로케트의 발사가 성공적이였다고 하면서 3개의 위성이 지상으로부터 822㎞ 상공의 우주에 진입하였다고 밝혔다.

예산적자 증가, 물가 인상

카나다에서 2010-2011회계년도의 11개월동안에 예산적자가 283억Can$ (카나다딸라)에 달하였다.

한편 미국에서 심각한 경제침체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미로동성은 14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3월에 전국적으로 도매가격이 그 전달보다 0.7% 또 비싸져 련속 9개월째 인상되였다고 밝혔다. 특히 휘발유가격은 5.7% 올랐다.

본사기자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 료녕성에서 봄철에 들어와 나무심기운동을 적극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현재까지 성적으로 105만 9000무의 면적에 나무를 심었다. 성에서는 나무심기를 계속 힘있게 내밀게 된다.

꾸바에서

꾸바의 건재공업부문에서 낡은 설비들을 교체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함으로써 모래, 자갈 등 골재생산을 늘일수 있게 되였다. 청년섬에 있는 채석장에 새 직장이 꾸려져 조업하였으며 마딴싸스주의 꼴리쎄오에서는 현대적인 골재생산흐름선을 갖추어놓았다.

또한 많은 기업소들에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500만t이상의 질좋은 골재를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25일 돌림감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깜빠니야가 시작되였다.

5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깜빠니야기간에 3000만명의 주민들이 접종을 받게 된다. 특히 로인, 토착민, 임신부, 2살미만의 어린이들이 우선적인 접종대상으로 되게 된다.

본사기자

세계적인 군사비지출액

스웨리예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11일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난해 세계적으로 군사비지출액이 총 1조 6300억US$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미국의 군사비지출액은 196억US$ 증대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싸일요격시험 감행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의 한고리로 최근 태평양상에서 또 한차례의 미싸일요격시험을 감행하였다. 시험에서는 마샬군도 크와잘레인섬에서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싸일을 목표로 미해군의 이지스구축함에서 요격미싸일을 발사하는 놀음이 벌어졌다.

나토군병력손실 증대

21일과 23일 아프가니스탄의 동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공격으로 나토군병사 2명이 또 즉사하였다. 이로써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나토군병사수는 130여명에 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파렴치한 《인권재판관》에 대한 항의규탄

미국은 세계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인권유린국, 인권후진국이다.

오늘 미국에는 수천만명의 빈궁자와 1500만명이상의 실업자가 있다. 집이 없어 한지에서 밤을 지새우는 가정은 수십만세대에 달한다. 총기류범죄 등 각종 폭력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도청행위 등 국가권력에 의해 감행되는 인권침해현상이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유색인들과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는 미국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녀성들과 어린이들은 미국사회에서 인권침해범죄의 첫째가는 희생자들이다. 그들에 대한 강간, 구타, 강제로동,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행위가 날로 성행하고있다.

지난 시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감행된 미국의 추악한 인권유린범죄는 오늘도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미국은 입이 열개라도 감히 인권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치도 저들이 《국제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듯이 해마다 《년례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고있다.

올해에도 미국은 판에 박힌 《년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지난 8일에 발표된 미국무성의 《2010년 나라별인권보고서》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악랄하게 헐뜯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어떤 나라는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고있다느니, 또 어떤 나라는 정치적반대파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있다느니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납득이 가지 않는 비난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제 처지도 모르고 《인권옹호》를 부르짖으며 《국제인권재판관》행세를 하는 미국의 역겨운 행위는 국제사회의 조소와 비난만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9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자기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견결히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국에서는 민주법제건설이 끊임없이 추진되고있으며 각 민족인민들이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있다고 하면서 인권보장을 중시하는 자국정부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중국은 미국이 자기 나라의 인권허물에 대해 반성하고 《년례인권보고서》발표등의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동을 그만둘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날 웰남외무성 대변인은 미국무성의 《인권보고서》는 웰남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정보들에 근거하여 비객관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린 허황한것이라고 말하였다.

지난 11일 로씨야외무성 공보출판국은 미국무성의 《2010년 나라별인권보고서》는 미국의 본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과 미국사이의 쌍무관계를 추가적으로 자극할뿐이라고 론평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이 문건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이중기준을 적용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보고서》의 로씨야부분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여전히 우리 나라에서 《인권과 자유가 유린》되고있고 로씨야가 《민주주의원칙에서 퇴보》하고있다는 날조된 내용이 들어있다.

론평은 계속하여 세계적으로 어린이색정이 가장 심하고 인신매매시장이 가장 큰 미국이 인권분야에서 《지도적역할》을 수행하려 하는것은 가관이 아닐수 없다고 야유하였다.

저들의 엄중한 인권유린문제는 당반우에 올려놓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형편》에 대해서만 운운하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행위는 알제리, 캄보쟈 등 다른 여러 나라들로부터도 응당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있다.

브라질외무성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시비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브라질은 미국무성의 《인권보고서》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수단의 한 인권문제전문가는 미국무성의 《인권보고서》는 미국이 《인권문제》를 자기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고 미국과 의견상이가 있는 나라들에 보복을 가하는데 리용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까밝히였다.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은 올해에도 주제넘은 《인권보고서》발표를 통하여 자기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챙기려 하였다가 결국은 세계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모두매를 맞는 신세가 되였다.

미국은 세계의 조소와 분노를 자아내는 《국제인권재판관》행세를 그만두고 자기의 추악한 인권유린죄악에 대해 심각히 반성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서남일

월간국제정세개관

로골화되는 지배주의세력의 침략야망

오늘 세계는 자주와 평화의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그럴수록 그것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이달 국제정세가 그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자들은 《지역안보》를 떠들면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지배야망을 로골적으로 추구하였다.

미제는 특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소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그들은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조선서해 남쪽연안에서 광란적인 전쟁연습을 벌렸다.

미국은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발악하였다. 그것은 미호전세력이 태평양의 하와이에서 남조선괴뢰들과 《확장억제정책위원회》라는것을 벌려놓고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모의를 벌린데서 더욱 드러났다.

미호전광들은 《확장억제력》이 남조선의 《안전보장》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 누구의 《핵위협》을 막기 위한 강도높은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기세를 올렸다. 다시말하여 반공화국군사적공조를 위한 《연구》를 본격화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기어이 강행하려는 미제의 변함없는 기도의 발로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호전광들이 남조선괴뢰들과 우리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미국의 《핵우산》, 기동타격무력, 미싸일방위체계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수단들을 총동원하기 위한 《연습협의회》라는것을 수차례 벌리기로 합의한것이다. 미호전세력들이 떠벌이는 그 무슨 《연습협의회》란 미국, 남조선사이의 반공화국군사적공조를 의미한다. 이른바 《대응수단》이라는것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말하며 그에 대한 《연구》는 북침핵선제공격작전을 검토하고 완성하는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제공 등과 관련한 미국의 공약은 본질에 있어서 북침핵선제공격론이다. 핵무기를 만능의 수단으로 여기는 미국은 대조선핵선제공격계획을 실천에 옮길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군사적공조를 위한 《연구》놀음은 그를 위한 선행공정이다.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미제의 핵전쟁씨나리오는 실천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달에 미국은 《인권몽둥이》를 휘두르며 다른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고 내정간섭을 일삼았다. 미국무성은 지난 8일에 발표한 《2010년 나라별인권보고서》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 등을 포함한 세계 190여개 나라와 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해 제멋대로 비난하였다.

내정불간섭은 그 어떤 경우에도 준수되여야 할 국제관계의 근본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인권은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가치》이며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는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였다.

《인권》에 대하여 말할 처지도 못되는자들이 《인권의 화신》처럼 놀아대면서 훈시하는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달에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침략자로서의 야수성을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이 나라의 쿠나르주에서 미공군무장직승기들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9명의 무고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땔감을 주으러 다니던 12살미만의 소년들이였다고 한다.

인류를 전률케 하는 이런 만행을 《인권》을 위한것이라고 합리화하는것보다 더한 흑백의 전도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달에 일본도 오만하게 행동하면서 해외팽창의 길로 줄달음쳤다.

일본외상 마쯔모또는 일본의 교과서검정제도에 대해 변명하는 자리에서 독도가 《일본고유의 령토》라는 일본정부의 립장은 일관하다고 떠들어댔다. 지어 그는 일본국회 참의원회의에서 발언하면서 독도가 외부의 《미싸일공격》을 받을 경우 그것은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된다.》는 호전적인 망발까지 줴쳤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독도를 《일본령토》로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어느때든 재침의 포성을 울리려 하고있다.

또한 문제시되는것은 과거 침략죄행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태도이다. 일본반동들은 일제가 저지른 침략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그에 대해 사죄할 대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고 재현하려는 책동에 극성을 부리였다. 지난 22일 《모두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에 소속되여있는 54명의 일본국회 의원들이 《야스구니진쟈》에 몰려가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망동을 부렸다. 일본에서 핵재난사태가 초래되여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있는 때에 일본정객들의 집단적인 《야스구니진쟈》참배놀음은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자민당 총재라는자는 《야스구니진쟈》참배후 기자단에 《나라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의 령혼을 위로하는것은 필요하다.》고 떠벌이였다.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어 날치다가 제명을 못살고 뒈진자들을 《나라를 위해 희생》된 《애국자》로 춰올리며 그들의 명복을 비는것은 죄악이다. 현실은 일본반동들이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려 재침의 길에 나서기 위해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의 지지비호를 받는 이스라엘의 책동으로 이달 중동지역 정세가 긴장해졌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유엔안보리사회 성원국들과 일부 유럽동맹 나라들이 팔레스티나를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경우 일방적인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위협하여나섰다. 이스라엘외무성의 한 고위관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 택하게 될 모든 선택안들을 검토하고있다.》고 망발하였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에서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을 목표로 야만적인 공습을 감행하였다. 이로 하여 팔레스티나인들속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스라엘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다그쳤다. 이스라엘이 중동평화의 암적존재라는것은 현실에 의해 더욱 뚜렷이 립증되였다.

조성된 정세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단합된 력량으로 그를 저지파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져도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침략적본성과 야망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는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이것이 이달 국제정세흐름을 총화하면서 다시금 찾게 되는 심각한 교훈이다.

김종손

ㄱ-11081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